중학 국어 어휘

정답과 해설

Ⅰ | 읽기 · 쓰기

01강 읽기 • 쓰기 | 사고 작용을 표현하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9쪽

◉ 탐색

드러나지 않은 적의 움직임을 찾아내는 상황이므로 '탐색'이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0~12쪽

01 (1) 동조 (2) 지향 (3) 추리 (4) 폄하 **02** (1) 지향하는 (2) 이성적 (3) 통념 (4) 합리적 **03** ③ **04** ① **05** ㉠ 각인, ㉡ 경향, ㉢ 이상적, ㉣ 동조 **06** ④ **07** ③ **08** 지양, 지향

01

(1) 학급 학생들이 반장의 의견에 '동조'한다는 것은 학급 학생들과 반장의 의견과 같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함.'이라는 뜻의 단어는 '지향'입니다. 여기에서는 '추구'로 바꾸어 써도 의미가 통합니다.

(3)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미루어서 생각함.'을 뜻하는 단어는 '추리'입니다.

(4) '가치를 깎아내림.'이라는 뜻의 단어는 '폄하'입니다. '폄훼'라고 써도 의미가 통합니다.

02

(1) '지양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지향하는' 것은 어떤 목표로 뜻이 쏠리어 향한다는 뜻입니다.

(2) '이상적'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가장 완전하다고 여겨지는. 또는 그런 것.'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냉정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황을 분석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이성적'이 더 적절합니다.

(3) 예술가에 대해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통념'이 적절합니다.

(4) '통상적'은 특별하지 아니하고 예사로운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평소와 다른 결과를 기대한다면 '통상적' 판단보다는 보다 '합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3

제시된 내용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 애쓰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추구하다'는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 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오답 풀이

① '기원하다'의 뜻입니다.
② '각인되다'의 뜻입니다.
④ '좇다'의 뜻입니다.
⑤ '지양하다'의 뜻입니다.

04

제시된 내용은 '탐구하다'의 사전 정보입니다.

오답 풀이

② '탐문하다'는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더듬어 찾아 묻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③ '탐방하다'는 '어떤 사실이나 소식 따위를 알아내기 위하여 사람이나 장소를 찾아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④ '탐색하다'는 '드러나지 않은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내거나 밝히기 위하여 살피어 찾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⑤ '탐험하다'는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05

㉠ 머릿속에 지식이 기억되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각인'이 적절합니다.

㉡ 인규의 독특한 행동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경향'이 적절합니다.

㉢ 일반적이거나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라는 의미를 완성해야 하므로 '이상적'이 적절합니다.

㉣ 인규의 행동을 따라하겠다는 친구를 말리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동조'가 적절합니다.

06

세 번째 문단에서 중국, 베트남 등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③ 2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⑤ 3문단에서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 19. 11. 15. 오후 5:37

07

'합리적'은 '이론이나 이치에 합당한. 또는 그런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③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경제적'입니다.

08

이 글은 세는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지 말자는 내용이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지양'이, 만 나이 계산법을 사용하자는 내용이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지향'이 적절합니다.

광고 속 어휘 말씀달쏠 본문 13쪽

물

02강 읽기 • 쓰기 | 경제와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5쪽

◉ 개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신제품을 만드는 업체이므로 '개발'이 적절합니다. 제시된 '개발'의 의미 중 「4」에 해당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6~18쪽

01 (1) ㉢ (2) ㉣ (3) ㉠ (4) ㉡ **02** ④ **03** ④ **04** ③
05 ㉠ 운영, ㉡ 걸리는, ㉢ 상설, ㉣ 염가 **06** ③ **07** ㉠ 개발, ㉡ 공급 **08** 염가

01

(1) '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여기서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재산을 뜻합니다.
(2) '생산'은 각종 물건을 만들어 낸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자동차를 만들어 냄을 뜻합니다.
(3) '소요된다'는 필요로 되거나 요구된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신소재 연구에 시간과 자금이 요구됨을 뜻합니다.
(4) '투자할'은 자본, 시간, 정성 등을 들인다는 의미로, 여기서는 인류에게 가치 있는 일에 공을 들인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02

㉠은 영화 감상보다 소설책 읽기에 시간을 들인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할애'가 적절합니다. '할애하다'는 '소중한 시간, 돈, 공간 따위를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선뜻 내어 주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에는 '경영'이라는 단어를 넣어 기업을 운용한다는 의미의 문장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은 조그마한 노력으로 좋은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으므로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짐작을 한다는 의미의 '지레짐작'이 적절합니다.

03

'추산하고'는 '짐작으로 미루어 셈하고.'라는 뜻의 단어로, 여기에서는 '미루어져 생각되어 판단하고.'라는 뜻의 '추정하고'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예정하고'는 '미리 정하거나 예상하고.'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② '증가하고'는 '양이나 수치가 늘고.'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③ '지레짐작하고'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 또는 어떤 기회나 때가 무르익기 전에 확실하지 않은 것을 성급하게 미리 짐작을 하고.'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⑤ '확대하고'는 '넓혀서 크게 하고.'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04

③에 제시된 뜻의 단어는 '계발'입니다.

오답 풀이
① 개발 「2」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② 개발 「3」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④ 개발 「1」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⑤ 개발 「4」에 해당하는 뜻입니다.

05

㉠ 친구들이 함께 매점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운영'이 적절합니다.
㉡ 매점을 여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므로 '시간이 들다.'라는 의미의 '걸리다'가 적절합니다.
㉢ 매일 열리는 시장이므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도록 설비와 시설을 갖추어 둠.'을 뜻하는 '상설'이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 19. 11. 15. 오후 5:37

㉣ 싼 가격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염가'가 적절합니다.

06

쓰기 간편하고 가격도 저렴한 휴대용 정수기인 '라이프 스트로'를 개발한 것은 맞지만, 이를 무상으로 공급했다는 내용은 찾을 수 없습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② 2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④, ⑤ 3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07

㉠ 구호 장비를 새로 만든다는 내용이므로 '개발'이 적절합니다.
㉡ 라이프 스토로를 구호 단체들에게 제공한다는 내용이므로 '공급'이 적절합니다.

08

라이프 스트로의 특징은 가격이 저렴하여 안전한 물을 구하지 못해 고통받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이 저렴함.'이라는 뜻의 단어인 '염가'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9쪽

01 ㉣ **02** 언중유골(言中有骨)

01

㉣ '고기는 씹어야 맛이고 말은 해야 맛이다'라는 속담은 '하고 싶은 말이나 해야 할 말은 해야 한다'라는 뜻을 지닌 관용 표현입니다.

오답 풀이

㉠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는 사람들이 주고받는 말의 전달 속도가 매우 빠르므로 평소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 '낮 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아무도 안 듣는 데서라도 말조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02

'언중유골(言中有骨)'은 말 속에 뼈가 있다는 뜻으로, 예사로운 말 속에 단단한 속뜻이 들어 있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03강 읽기 • 쓰기 | 법률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21쪽

◉ 벌였다

말다툼이나 논쟁을 할 때에는 '벌이다'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제시된 '벌이다'의 의미 중 3번에 해당하는 의미입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2~24쪽

01 (1) ② (2) ① (3) ② **02** (1) 제정 (2) 부과하는 (3) 남용
03 ① **04** ⑤ **05** ㉠ 풍습, ㉡ 사익, ㉢ 개입 **06** ③
07 ⑤ **08** ❶ 피해 ❷ 제정 ❸ 개정

01

(1) '적발하다'는 밀수업자들의 잘못을 들추어냈다는 의미입니다. ①의 뜻을 지닌 단어는 '구속하다'입니다.
(2) 법을 잘 지키는 일은 '사회 전체의 이익.', 즉 '공익'에 꼭 필요한 일입니다. ②의 뜻을 지닌 단어는 '인권'입니다.
(3) '과오'는 '잘못이나 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①의 뜻을 지닌 단어는 '착오'입니다.

02

(1) 새롭게 법을 만드는 것이므로 '제정'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정'은 '주로 문서의 내용 따위를 고쳐 바르게 함.'의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2) 잘못을 한 학생에게는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하므로 '부과하는'이 적절합니다. '납부하는'은 '세금이나 등록금 등을 국가 또는 공공 기관에 내는.'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3) 조금 아플 때마다 약을 먹는다는 것은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약을 쓴다는 것이므로 '남용'이 적절합니다. '도용'은 남의 것을 허락 없이 몰래 씀.'을 의미합니다.

03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 등을 참고했을 때 석유의 낭비가 크다는 설명이므로 '감안하면'의 뜻은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하면'이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 19. 11. 15. 오후 5:37

오답 풀이
② '고안하면'의 뜻입니다.
③ '따지면'의 뜻입니다.
④ '궁리하면'의 뜻입니다.
⑤ '생각하면'의 뜻입니다.

04
입씨름을 하는 것은 ㉠에 제시된 말다툼 따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번 의미에 해당합니다.
③, ④ 2번 의미에 해당합니다.

05
㉠ 새로 전학 온 곳의 특성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한 사회에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습관을 가리키는 단어인 '풍습'이 적절합니다.
㉡ 마지막 그림으로 볼 때 과자를 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이익.'을 의미하는 '사익'이 적절합니다.
㉢ 남학생 두 명이 다투고 있다고 생각한 여학생이 두 남학생 사이에 끼어들어 싸움을 말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말하고 있으므로 '개입하다'가 적절합니다.

06
2문단에 따르면 이기주의의 만연으로 층간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공동체의 삶이 황폐해지고 있는 실정이므로 ③이 정답입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④ 2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⑤ 3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07
'부과하는'은 '세금이나 부담금 따위를 매기어 부담하게 하는.'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⑤에 제시된 의미를 지닌 단어는 '배상하는'입니다.

08
❶ 층간 소음으로 인해 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이므로 '피해'가 적절합니다.
❷ 외국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례는 우리나라에 없는 사례이므로 '제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❸ 공동 주택 관리 기구의 경우는 현재 제도가 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개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25쪽

01 ㉮ 돋을볕 ㉯ 볕뉘 ㉰ 해거름 ㉱ 윤슬 ㉲ 해미 ㉳ 메밀꽃
02 저녁, 바다

01
㉮ 아침 해가 솟아오르고 있으므로 '돋을볕'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 작은 틈을 통하여 햇볕이 비치고 있으므로 '볕뉘'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 해가 저무는 장면이므로 '해거름'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 달빛에 비추어 바다의 잔물결이 반짝이는 그림이므로 '윤슬'을 표현한 그림입니다.
㉲ 바다 위에 짙은 안개가 끼여 있으므로 '해미'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 '메밀꽃'은 말 그대로 메밀의 꽃을 뜻하기도 하지만 파도가 부서져 물보라를 일으킨 것을 비유적으로 뜻하기도 합니다.

02
'해거름'은 해가 질 즈음을 가리키므로 저녁 시간에 해당하고, '메밀꽃'이 피는 것이 아니라 '이는'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바다'가 맞습니다.

04강 읽기 • 쓰기 | 역사와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27쪽

◉ 고용인, 피고용인

사장은 고용을 하는 사람이므로 '고용인', 아르바이트생은 고용이 된 사람이므로 '피고용인'이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5 19. 11. 15. 오후 5:37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28~30쪽

01 ④ **02** (1) 계승하다 (2) 약탈하다 (3) 배치하다 (4) 동원하다
03 ⑤ **04** ② **05** ㉠ 전략, ㉡ 떨쳐, ㉢ 만끽해, ㉣ 되새겨
06 ⑤ **07** ③ **08** 반출, 환수

01

㉠ '향유하다'는 '누리어 가지다.'라는 의미의 단어이므로 '누리다'와 의미가 유사합니다.
㉡ '계승자'와 '후계자'는 모두 무언가를 이어 나가는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 '되새기다'와 '반추하다'는 모두 지난 일을 다시 떠올려 생각해 본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 '발휘하다'는 '재능, 능력 따위를 떨치어 나타내다.'라는 뜻이고, '쟁탈하다'는 '서로 다투어 빼앗는다.'라는 뜻이므로 유사한 단어 관계가 아닙니다.

02

(1) '문화유산'을 포함한 '전통'은 과거로부터 전해 내려왔으며 앞으로도 이어져 가야 할 것들이므로 '계승하다'와 관련이 있습니다.
(2) '전쟁'에서 '전리품' 등을 억지로 빼앗는 행위를 '약탈하다'라고 합니다.
(3) '보루'와 '요충지'는 모두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가리키는 표현이므로 유사시에 병력이 알맞게 '배치하여'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4) '부역' 혹은 '병역'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행위를 '동원하다'라고 합니다.

03

여기에서 '대항하다'는 폭풍에 맞서서 버틴다는 의미로 쓰였으므로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닌 '저항하다'와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거부하다'는 '요구나 제의 따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② '거역하다'는 '윗사람의 뜻이나 지시 따위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③ '반항하다'는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맞서 대들거나 반대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④ '역행하다'는 '보통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거슬러 나아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04

'피지배층', '피고용인', '피고발인'은 모두 지배, 고용, 고발 등이 되거나 당한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오답 풀이

① 접사 '반–', 접사 '역–'의 뜻입니다.
③ 접사 '유–'의 뜻입니다.
④ 접사 '대–'의 뜻입니다.
⑤ 접사 '본–', 접사 '원–'의 뜻입니다.

05

㉠ 성적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전략'이 적절합니다.
㉡ 시험을 잘 치러 이름을 널리 알리고 싶다는 의미이므로 '떨치다'가 적절합니다.
㉢ 기쁨을 즐기고 싶다는 뜻이므로 '만끽하다'가 적절합니다.
㉣ 시험을 치른 후 자신의 모습을 반성하고 있으므로 '되새기다'가 적절합니다.

06

이 글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 문화재 환수와 현지 활용 방안을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의 내용입니다.
② 2문단의 내용입니다.
③ 3문단의 내용입니다.
④ 4문단의 내용입니다.

07

'대응하다'는 '어떤 일이나 사태에 맞추어 태도나 행동을 취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③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대항하다'입니다.

08

이 글은 해외로 나간 문화재를 제재로 다루고 있으므로 첫 번째 빈칸에는 '운반하여 냄.'을 뜻하는 '반출'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해외에 반출된 문화재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문화재를 돌려받거나 현지에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두 번째 빈칸에는 돌려받는다는 의미를 지닌 '환수'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6 19. 11. 15. 오후 5:37

05강 읽기 • 쓰기 | 자연 현상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33쪽

◉ 전도(顚倒)

주인과 손님의 위치가 바뀐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므로 '전도(顚倒)'를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34~36쪽

01 (1) ㉠ (2) ㉣ (3) ㉡ (4) ㉢ **02** (1) 입자 (2) 상태 (3) 촉매
03 ② **04** ③ **05** ㉠ 상태, ㉡ 부패, ㉢ 균등, ㉣ 척도 **06** ④
07 ③ **08** 얼음 저장 과정

01

(1) 체온을 재는 행위는 '측정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2) 조사 '도'가 쓰인 것은 형태와 두께에 공통점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균일하다'는 '한결같이 고르다.'라는 뜻으로 쓰이므로 형태를 나타내는 '일정하다'와 의미가 통합니다.
(3)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것은 '미세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이므로 '작동하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02

(1) 아주 작은 모래 알갱이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입자'입니다.
(2) 얼음에 열을 가하면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물로 변화하게 됩니다.
(3) 그의 행동이 사람들을 변화시켰으므로 그의 행동을 '촉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03

'꿩 대신 닭'이 '닭 대신 꿩'으로 바뀌면서 단어가 등장하는 차례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배열'이 ②의 의미로 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나열'의 뜻입니다.
③ '열거'의 뜻입니다.
④ '진열'의 뜻입니다.
⑤ '정렬'의 뜻입니다.

04

③에 쓰인 '전도'는 특정 분야의 밝은 미래에 관한 것이므로 ㉠ '앞으로 나아갈 길.'의 의미로 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⑤ 열 또는 전기가 물체 속을 이동하였음을 나타내는 단어인 '전도(傳導)'가 쓰인 문장입니다.
②, ④ 위치나 차례가 거꾸로 바뀜을 뜻하는 단어인 '전도(顚倒)'가 쓰인 문장입니다.

05

㉠ 몸의 현재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상태'가 적절합니다.
㉡ 어떤 음식이 배를 아프게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으므로 음식이 상하였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인 '부패'가 적절합니다.
㉢ 형은 자신이 동생과 동일한 크기의 피자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균등'이라는 단어가 적절합니다.
㉣ 동생의 입장에서는 형과 나누어 먹은 피자의 크기가 달랐다고 생각하므로 피자의 크기를 재는 기준, 즉 '척도'가 달랐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06

겨울철에도 석빙고 내부를 차갑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를 위해 날개벽을 설치했다고 하였으므로 자연스럽게 냉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③ 2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⑤ 3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07

㉢ '측정한'은 '일정한 양을 기준으로 하여 같은 종류의 다른 양의 크기를 잼.'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석빙고의 평균 온도를 잰 것입니다. ③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예측한'입니다.

08

석빙고의 '얼음 저장 과정'은 냉각과 저온 유지의 두 단계로 나누어지는데, 제시된 글에서는 그중 첫 번째 단계인 냉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욱.indd 7 19. 11. 15. 오후 5:37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37쪽

01 ㉡ **02** 설상가상(雪上加霜)

01

㉡ '언발에 오줌 누기'라는 속담은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그것을 외면하고 얕은 꾀를 부려 지금 당장의 편안함을 얻으려는 태도'를 뜻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오답 풀이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힘이나 비용을 아무리 들여도 전혀 성과나 보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는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도 다듬고 정리하여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값어치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자기가 큰 손해를 볼 것은 생각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을 없애려고 무모하게 덤비기만 하는 어리석은 태도를 의미합니다.

02

'설상가상(雪上加霜)'은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06강 읽기 • 쓰기 | 생명 활동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39쪽

◉ 늘어

철로의 길이가 늘어난 것이므로 '늘이다'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40~42쪽

01 (1) ② (2) ② **02** (1) 진화 (2) 자정 **03** ⑤ **04** ⑤ **05** ㉠ 개체, ㉡ 산란, ㉢ 점진적, ㉣ 교묘한 **06** ④ **07** (1) 노폐물 (2) 분비 **08** 추정, 배출

01

(1) '섭취하다'는 양분 등을 몸속으로 빨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①은 '함유하다'의 뜻입니다.

(2) '위장하다'는 정체나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거짓으로 꾸미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①은 '적응하다'의 뜻입니다.

02

(1) '진화하다'는 첫 번째 문장처럼 점점 발달하여 간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처럼 생물이 점진적으로 변화해 간다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2) '자정'은 첫 번째 문장처럼 오염된 물이나 땅이 저절로 깨끗해짐을 뜻하기도 하고, 두 번째 문장처럼 비리 따위로 부패된 조직이 어떤 조치를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03

'함유하고'는 '물질이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고.'라는 뜻이므로 '포함하고'로 바꾸어 쓸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머금고'는 '사물의 어떤 기운을 안에 품고.'라는 뜻입니다.

② '분비하고'는 '세포에서 만들어진 액체를 세포 밖으로 내보내고.'라는 뜻입니다.

③ '생성하고'는 '사물이 생겨나고. 또는 사물이 생겨 이루어지게 하고.'라는 뜻입니다.

④ '소지하고'는 '물건을 지니고 있고.'라는 뜻입니다.

04

길이가 늘어나는 것은 '늘이다'로 쓰고, 길이 이외에 넓이, 부피, 시간 등이 늘어나는 것은 '늘리다'로 씁니다.

05

㉠ 각각의 물고기마다 생김새가 다르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그 개별적인 물고기를 가리킬 수 있는 '개체'가 적절합니다.

㉡ 알을 낳는 것을 '산란'이라고 합니다.

㉢ 빠르지 않게 늘어나는 것은 '점진적'으로 늘어난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 좋아하는 친구에게 말을 붙이는데 물고기를 이용한 작전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작전이 '교묘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06

방귀나 똥 냄새가 심해지는 것은 작은창자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음식물의 영양소가 큰창자에서 발효되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8 19. 11. 15. 오후 5:37

기 때문입니다. 즉,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작은 창자입니다.

오답 풀이

①, ② 3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③ 1, 2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⑤ 2문단에 있는 내용입니다.

07

(1) '노폐물'은 '생체 내에서 생성된 대사산물 중 생체에서 필요 없는 것.'을 뜻합니다.
(2) 소화액 등을 내보내는 것을 '분비'라고 합니다.

08

1, 2문단은 똥의 상태를 통해 몸의 건강 상태를 미루어 판단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건강 상태를 '추정'한다고 쓸 수 있습니다. 3문단은 몸 밖으로 나온 똥 중 건강한 똥이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배출'이라고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43쪽

01 ㉮ 잠비 ㉯ 여우비 ㉰ 떡비 ㉱ 자국눈 ㉲ 설밥 ㉳ 길눈
02 • 잠비, 떡비 • 자국눈, 길눈

01

㉮ 여름철에 내려 낮잠을 잘 수 있도록 해 주는 비를 '잠비'라고 합니다.
㉯ 비가 잠시 오다가 그친 장면을 그린 것으로 '여우비'를 표현한 그림입니다.
㉰ 벼가 익어 고개를 숙인 것으로 보아 가을철 풍경입니다. 가을비를 다른 말로 '떡비'라고 합니다.
㉱ 겨우 발자국이 날 만큼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이러한 눈을 '자국눈'이라고 합니다.
㉲ 어른께 세배를 드리고 있는 설날의 풍경입니다. 설에 내리는 눈을 '설밥'이라고 합니다.
㉳ 눈이 몹시 많이 내린 장면이네요. '길눈'은 한 길이 될 만큼 많이 쌓인 눈을 뜻합니다. 여기서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의 길이를 말합니다.

02

여름에는 낮잠을 잘 수 있도록 '잠비'가, 가을은 벼를 수확하는 철이므로 느긋하게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도록 '떡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발자국 정도가 남을 정도의 적은 눈을 '자국눈', 아주 많이 쌓인 눈은 '길눈'이라고 합니다.

07강 읽기 • 쓰기 | 지구와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45쪽

◉ 채취, 채집

그가 얻고자 하는 대상이 식물이므로 '풀, 나무 따위를 캐거나 베어 얻어 냄.'을 뜻하는 '채취', '널리 찾아서 얻거나 캐거나 잡아 모으는 일.'을 뜻하는 '채집'이 가능합니다. '채굴'은 광물 따위를 캘 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46~48쪽

01 (1) 해류 (2) 궤도 (3) 주기 (4) 분포 **02** ② **03** ⑤ **04** ② **05** ㉠ 분화, ㉡ 관측, ㉢ 가시권 **06** ③ **07** 이면, 표면 **08** 지역적, 기후

01

(1) 쓰레기가 바다의 흐름에 따라 이동하는 것이므로 '해류'를 쓸 수 있습니다.
(2) 우주 쓰레기가 일정한 길을 돌고 있음을 나타내야 하므로 '궤도'를 쓸 수 있습니다.
(3) 정화 작업을 일정한 때마다 반복해야 함을 써야 하므로 '주기'를 쓸 수 있습니다.
(4) 사람들이 많이 퍼져 있음을 나타낼 수 있는 단어는 '분포'입니다.

02

나미는 미세 먼지가 공기 중에 가득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공기는 다른 말로 '대기'라고 쓸 수 있습니다. 주희는 실내 공기를 맑게 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환기'는 탁한 공기를 맑은 공기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호영은 미세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아 겉으로 보기에 구분하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표면'은 사물의 겉면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9 19. 11. 15. 오후 5:37

03

'불모'는 '사막과 극지처럼 땅이 거칠고 메말라 식물이 나거나 자라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① '쓸쓸하고 막막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삭막하다'입니다.
② '쓸쓸하다'는 '외롭고 적적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날씨가 으스스하고 음산하다.'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③ '후미져서 무서움을 느낄 만큼 고요하다.'라는 뜻의 단어는 '호젓하다'입니다.
④ '정신이나 생활 따위가 거칠어지고 메말라 가다.'라는 뜻의 단어는 '황폐하다'입니다.

04

광물 따위를 캐내는 행위는 '채굴'이라고 합니다. '채취'는 풀, 나무, 광석 따위를 찾아내거나 캐낼 때 쓰므로 '채굴'보다는 넓은 범위에 적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한편 '채집'은 무언가를 널리 찾아 얻어 내는 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05

㉠ 화산이 터져 나오는 것을 '분화'라고 합니다.
㉡ 남학생은 인공지능 기계가 화산 폭발을 알려 주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관측'은 기계 등으로 어떤 사실을 알아내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 직접 볼 수 있을 정도로의 거리를 '가시권'이라고 합니다.

06

4문단에 북극은 8월 말에 영상 10℃ 정도로 비교적 따뜻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1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② 1문단과 2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④ 3문단에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⑤ 4문단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07

'이면'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을 가리키고, '표면'은 겉으로 나타나거나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빙산의 일각'은 대부분은 이면에 가려져 있고 표면에 보이는 것은 극히 일부일 뿐임을 이를 때 쓰는 말입니다.

08

이 글은 남극과 북극의 지역적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이로 인해 남극과 북극의 기후 조건에 차이가 발생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광고 속 어휘 알쏭달쏭 본문 49쪽

적신호

'적신호'는 교차로나 횡단보도에서 보이는 붉은 등을 의미하는 말로, 비유적으로는 위험한 상태에 있음을 알려주는 각종 조짐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08강 읽기 • 쓰기 | 문화 예술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51쪽

◉ 퉁기며, 튕기며

'튕기다'의 여러 의미 중에는 '기타, 하프 따위의 현을 당겼다 놓아 소리가 나게 하다.'가 있는데, 다른 말로 '퉁기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52~54쪽

01 (1) ㉡ (2) ㉠ (3) ㉣ (4) ㉢ **02** (1) 추상적 (2) 역동적 (3) 조형되다 (4) 시각 **03** ① **04** ㉠ 튀기다, 튕기다, ㉡ 퉁기다, 튕기다 **05** ㉠ 역동적, ㉡ 구도, ㉢ 안목, ㉣ 경의 **06** ③ **07** ① **08** 정신, 기법

01

(1) '경외'는 '공경하고 두려워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술 작품을 감동했다면 창작자에게 경외를 느낄 수 있습니다.
(2) '식견'은 '학문과 견문.'이라는 뜻인데, 많은 경험을 하면 식견을 넓힐 수 있습니다.
(3) '한옥'은 우리나라의 전통 가옥이므로 '예스러운' 분위기를 줍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0 19. 11. 15. 오후 5:37

(4) '청아하다'는 '맑고 아름답다.'라는 뜻이므로 어린이의 노랫소리를 꾸며 주기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02

(1) '사랑'과 '그리움'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므로 '추상적'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2) '역동적'은 '힘'이 있는 '움직임'을 뜻하는 말입니다.
(3) '조각'과 '건축물'은 모두 여러 가지 재료로 구체적인 형상이 만들어진 것, 즉 '조형된'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과 건축을 조형 예술이라고 합니다.
(4) '시각' 능력을 통해 대상을 '관찰'하거나 '파악'할 수 있습니다.

03

문맥상 훼손된 그림을 되살려 낸다는 의미로 쓰인 '복원하려면'은 사전적으로 '원래대로 회복하려면.'이라는 뜻을 지녔습니다. '복구하려면'은 '손실 이전의 상태로 회복하려면.'이라는 의미를 지녔으므로 '복원하려면'과 의미가 통하는 말입니다.

오답 풀이

② '복귀하려면'은 '본디의 자리나 상태로 되돌아가려면.'이라는 뜻입니다.
③ '설치하려면'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기관이나 설비 따위를 베풀어 두려면.'이라는 뜻입니다.
④ '제작하려면'은 '재료를 가지고 기능과 내용을 가진 새로운 물건이나 예술 작품을 만드려면.'이라는 뜻입니다.
⑤ '지원하려면'은 '지지하려 도우려면.'이라는 뜻입니다.

04

'튕기다'는 ㉠, ㉡의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반면 '튀기다'는 ㉠의 의미로만, '퉁기다'는 ㉡의 의미로만 쓰이는 단어입니다.

05

㉠ 남학생이 힘차고 기운이 넘쳐 보이는 자세로 사진을 찍고 있으므로 '역동적'이 적절합니다.
㉡ 구도는 그림이나 사진에서 모양, 색깔, 위치 따위의 짜임새를 말하는데, 남학생을 찍은 사진에는 배경과 인물의 위치 등이 구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 사진의 가치를 친구가 인정해 주었으므로 어떤 것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안목'이 적절합니다.
㉣ 서로를 칭찬하고 있는 장면이므로 '경의'가 적절합니다. '경의'는 '존경하는 뜻.'을 의미합니다.

06

사물을 보이는 대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림의 기록적인 측면을 중시한 서양이며, 동양에서는 이를 그림의 기초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답 풀이

①, ② 1문단의 내용입니다.
④, ⑤ 2문단의 내용입니다.

07

'시각'은 '사물을 관찰하고 파악하는 기본적인 자세.'를 뜻합니다. ①에 제시된 뜻을 지니는 단어는 '시야'입니다.

08

이 글은 동양에서는 정신과 인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게 여겨졌고, 서양에서는 그림의 기록적인 측면이나 표현 방법, 즉 기법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55쪽

01 ㉣ **02** 고장난명(孤掌難鳴)

01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라는 속담은 '한쪽이 참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랬다'는 나쁜 일은 말리고 좋은 일은 권장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는 남에게 말이나 행동을 좋게 해야 자기에게도 좋은 반응이 돌아온다는 의미입니다.
㉢ '일각(一刻)이 여삼추(如三秋) 같다'는 짧은 동안도 삼 년같이 생각된다는 뜻으로, 기다리는 마음이 간절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02

'고장난명(孤掌難鳴)'은 '외손뼉만으로는 소리가 울리지 아니한다.'라는 뜻으로, 혼자의 힘만으로 어떤 일을 이루기 어려움을 이르는 말로서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아니함.'을 일컫기도 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1 19. 11. 15. 오후 5:37

오답 풀이

- '용호상박(龍虎相搏)'은 우열을 가리기 힘든 강자끼리 서로 싸움을 의미합니다.
- '사상누각(沙上樓閣)'은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을 의미합니다.
- '구밀복검(口蜜腹劍)'은 말로는 친한 듯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즉 겉과 속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09강 읽기 • 쓰기 | 필수 개념어 (1)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58~60쪽

01 (1) 정의 (2) 대조 (3) 분석 (4) 과정 **02** (1) ㉡ (2) ㉠ (3) ㉢ (4) ㉢ **03** (1) 구분 (2) 대조 (3) 예시 **04** (1) 과정 (2) 대조 (3) 분석 (4) 예시 **05** ㉠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곤 하였다. ㉡ 원주민들이 재난 경보를 들려주는 간단한 장비조차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다. **06** ④ **07** ❶ 꿀 ❷ 조청 ❸ 정의 ❹ 항산화 ❺ 인과 ❻ 정의 ❼ 인과

01

(1) 말이나 글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개념이나 대상은 그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는데, 이렇게 한 대상의 뜻을 명백히 규정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2) 차이점을 드러내는 설명 방법을 '대조'라고 합니다. 반면 공통점을 드러내는 설명 방법을 '비교'라고 합니다.

(3) '분석'은 얽혀 있거나 복잡한 대상을 개별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한편 '분류'는 여러 가지 대상을 종류에 따라 나누는 것이므로 '분석'과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4) '과정'은 어떤 사물이나 상태의 변화를 설명할 때 적합한 설명 방법입니다.

02

(1) '예시'는 이해하기 어려운 대상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함으로써 독자의 이해를 돕는 설명 방법입니다.

(2) '비교'는 대상 간의 공통점을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3) '분류'는 많은 대상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묶어서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4) '원인'의 '인'과 '결과'의 '과'를 조합하여 만들어진 단어가 '인과'입니다.

03

(1) '구분'은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입니다. 이 글은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을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2) 직접세는 세금을 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과 실제로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일치하지만, 간접세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의 차이점을 부각하고 있으므로 '대조'가 적절합니다.

(3) 간접세의 예로 부가 가치세, 개별 소비세, 인지세 등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예시'가 적절합니다.

04

(1) 꽃을 심는 방법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이므로 '과정'의 방법을 쓰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두 대상 간의 차이점을 밝히는 것은 '대조'입니다.

(3) 한 대상의 세부적인 구성 요소를 나누어 설명하는 것이므로 '분석'이 적절합니다.

(4) 학교 교칙을 위반한 사례는 '예시'에 해당합니다.

05

㉠ 화산 폭발이라는 원인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당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 재난에 속절없이 당하는 결과가 생긴 것은 재난 경보를 들려주는 간단한 장비조차 살 수 없을 만큼 가난했던 것이 원인입니다.

06

'수요'는 '어떤 재화나 용역을 일정한 가격으로 사려고 하는 욕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④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공급'입니다.

07

❶, ❷ 글에 제시된 두 가지 전통 감미료는 '꿀'과 '조청'입니다.

❸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❹ 꿀의 구성 성분으로 무기질, 비타민, 항산화 성분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❺ 만들기 어렵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하여 생산량이 적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❻ 개념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❼ 재료의 특성을 원인으로 하여 보관이 어렵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2 19. 11. 15. 오후 5:37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61쪽

01 ❶ 마닐마닐 ❷ 자밤 ❸ 머드러기 ❹ 소나기밥 ❺ 맛바르다
02 예 소나기밥을 먹었지만 음식이 마닐마닐하여 소화가 잘 되었다.

01

❶ '마닐마닐하다'는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다는 뜻이므로 떡의 식감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단어입니다.
❷ 약간의 소금을 표현할 수 있는 단위로 '자밤'이 있습니다.
❸ 과일 중에서 '머드러기'는 다른 것들에 비해 굵거나 큰 것을 가리킵니다.
❹ 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않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을 '소나기밥'이라고 합니다.
❺ '맛바르다'는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않을 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02

'마닐마닐하다, 맛바르다, 머드러기, 소나기밥, 자밤' 중 두 가지를 골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10강 읽기 • 쓰기 | 필수 개념어 (2)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64~66쪽

01 (1) 논증 (2) 근거 (3) 비판 **02** (1) ㉡ (2) ㉠ (3) ㉢ **03** (1) 발전 (2) ❶ 청어 ❷ 물메기 ❸ 환경 **04** (1) 논제 (2) 출처 (3) 전제 **05** (1) 표제 (2) 부제 (3) 전문 (4) 해설 **06** 16세기 이후 이 땅 곳곳에 세워져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에 숱한 풍운을 겪으며 원형을 보존한 전통 서원 9곳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올랐다. **07** ② **08** ❶ 극지 ❷ 장기적 ❸ 자원 ❹ 지구 환경 변화

01

(1) '논증'은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옳고 그름을 밝히는 것입니다.
(2) '근거'는 어떠한 주장을 할 때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3) 주장하는 글을 읽을 때는 옳고 그름을 논리적으로 따져 보는 등 비판적 관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1) '서론'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논의의 배경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2) '본론'은 주장하는 글의 핵심적인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는 부분입니다.
(3) '결론'은 앞선 내용을 정리하면서 끝을 맺는 부분입니다.

03

(1) 이 글은 인류의 '발전'이 가혹한 환경을 바탕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 ❶ 이 글은 청어와 인류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❷, ❸ 청어는 '물메기'라는 가혹한 시련을 통해 살아남고, 인류는 가혹한 '환경'을 통해 발전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04

(1) 토론의 주제를 '논제'라고 합니다.
(2) 신뢰할 수 있는 통계 자료는 '출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3) 약속 등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이루기 위해 먼저 내세우는 것을 '전제'라고 합니다.

05

(1) 신문에 실린 기사의 제목을 '표제'라고 합니다.
(2) 제목에 덧붙여 그것을 보충하는 제목을 '부제'라고 합니다.
(3) 기사문의 본문에 앞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하는 부분을 '전문'이라고 합니다.
(4) '해설'은 기사를 이해하기 위한 참고 내용으로서 필요 없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06

이 기사문의 첫 문장은 전통 서원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사실과 전통 서원의 의의 등 전체 기사문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으므로 '전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욱.indd 13 19. 11. 15. 오후 5:37

07

'개발하다'는 '토지나 천연자원 따위를 유용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②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계발하다'입니다.

08

❶, ❷ 이 글은 '극지' 연구가 공익성을 지녔으므로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❸ 첫 번째 근거는 극지에 크릴, 석유, 천연가스 등 자원이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❹ 두 번째 근거는 남극과 북극이 지구 환경 변화를 연구하는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Ⅱ | 문학

11강 시 | 자연을 표현하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71쪽

◉ • 치솟다 • 치받아

- '치-'는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말입니다. '치솟다'는 '① 위쪽으로 힘차게 솟다. ② 감정이나 생각 등이 세차게 복받쳐 오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분노가 복받쳐 오르는 상황에 적절합니다. 한편 '치뜨다'는 '눈을 위쪽으로 뜨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 '치받다'는 '아래에서 위쪽을 향하여 받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단어로, 공을 아래에서 위쪽으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72~74쪽

01 (1) 여우비 (2) 아스라하게 **02** ③ **03** (1) ㉡ (2) ㉠ (3) ㉢ (4) ㉣ **04** ① **05** ③ **06** ㉠ 개화, ㉡ 낙화, ㉢ 지천, ㉣ 내 **07** ③ **08** ㉠ 치솟는, ㉡ 잘고

01

(1) '여우비'는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의미합니다. 비가 오는 둥 마는 둥, 이상한 날씨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우비'가 내린다고 하는 것이 어울립니다.

(2) '아스라하다'는 '높거나 까마득하게 멀다.'라는 뜻입니다. 나무 꼭대기를 쳐다보며 보일 듯 말 듯하다고 표현하려면 '아스라하게'가 적절합니다.

02

제시된 속담에 들어가기 적절한 말은 한 뼘 정도를 말하는 '자'입니다. '길'은 '사람의 키' 정도이고, '치'는 '손가락 한 마디' 정도입니다. '보'는 걸음이고, '푼'은 돈을 세는 단위입니다.

03

(1) 마늘을 가늘고 작게 만든다는 의미이므로 '잘게'가 적절합니다.

(2) 양파와 같은 열매, 과일 등의 둥근 것이 크다고 할 때는 '굵게'가 적절합니다.

(3) 날씨가 따뜻해지니 두껍지 않은 옷을 입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얇게'가 적절합니다.

(4) 굵기가 얇으면서 긴 것에 대해 말하거나, 약한 목소리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가늘게'가 적절합니다.

04

의미가 약해진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퇴색'은 '빛이나 색이 바램.'이라는 뜻입니다.

05

'어리다'는 여러 뜻을 가진 다의어입니다. '저녁노을이 어머니 얼굴에 어려'는 노을빛이 희미하게 비쳤다는 뜻입니다.

오답 풀이

① '어린' 시절은 나이가 적은 시절을 말합니다.

② '어리다고'는 형이라는 비교 대상보다 나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④ 입가에 미소가 은근히 드러난 모양을 나타낸 문장입니다.

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작고 여린 강아지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4 19. 11. 15. 오후 5:37

06

㉠ 벚꽃이 활짝 '피었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개화'가 적절합니다.

㉡ 눈 내리듯 벚꽃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낙화가' 적절합니다.

㉢ 벚꽃이 '많이' 흩날린다는 의미가 들어가야 하므로 '지천'이 적절합니다.

㉣ 흐르는 시내, 개천 등의 의미를 가진 어휘가 들어가야 하므로 '내'가 적절합니다.

07

'맵고 모진 매'는 화자 자신을 채찍질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세상이 어지러운 것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오답 풀이

① '바다처럼' 너그럽게 감싸고 끌어안고 받아들이고 싶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포용력 있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② 화자는 남에게만 엄격한 자신을 반성하면서 스스로를 억세고 모질게 다스리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④ 화자는 '친구인데도 원수보다 미워지는 날이 많다'고 말했으므로 적절한 진술입니다.

⑤ 화자는 친구의 '티끌만 한 잘못이 맷방석만 하게' 보이는 날이 많다며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08

화가 갑자기 복받쳐 오른다고 말하는 것이 문맥에 어울리므로, ㉠에는 '치솟는'이 적절합니다. 화자는 스스로가 '돌처럼 잘아지고 굳어'진다고 반성했으므로, ㉡에는 '잘고'가 적절합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75쪽

01 ㉠ **02** 고진감래(苦盡甘來)

01

㉠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속담은 '어려운 일이나 고된 일을 겪은 뒤에는 반드시 즐겁고 좋은 일이 생김.'을 뜻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오답 풀이

㉡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모든 일은 근본에 따라 거기에 걸맞은 결과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 '공든 탑이 무너지랴'는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한 일은 그 결과가 반드시 헛되지 아니함을 의미합니다.

㉣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맞서는 사람이 없으면 싸움이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혼자 힘만으로는 어떤 일을 이루기 힘들다는 의미입니다.

02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한자 성어는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옴.'을 이르는 말입니다.

12강 시 | 사람들의 삶을 표현하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77쪽

◉ • 2 • 4

- '마음을 독하게 먹고 노력해 보자.'라는 문장에서 '먹다'는 '어떤 마음이나 감정을 품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 '또 실수를 해서 핀잔을 먹었다.'라는 문장에서 '먹다'는 '남에게 욕, 꾸지람, 핀잔 등을 듣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78~80쪽

01 (1) 진솔 (2) 구슬픈 (3) 한사코 (4) 눈시울 **02** ⑤ **03** ① **04** ⑤ **05** ㉠ 윗목, ㉡ 아랫목, ㉢ 온기, ㉣ 마중 **06** ④ **07** 윗목 **08** ③

01

(1) '거짓이 없고 솔직'한 것을 '진솔'하다고 합니다. 내가 거짓 없이 솔직한 고백을 하여 친구의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2) '마음이 쓸쓸해질 만큼 슬픈' 것을 '구슬프다'고 합니다. 슬픈 피리 가락에 대한 표현입니다.

(3) '있는 힘을 다하여'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을 '한사코'한다고 말합니다. 있는 힘을 다하여 제안을 거부하는 상황에 대한 표현입니다.

(4) 눈물이 나려고 할 때 뜨거움을 느끼는, 속눈썹이 있는 눈의 주위는 '눈시울'이라고 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5 19. 11. 15. 오후 5:37

02

'내력'에는 '어떤 일이 있게 된 과정이나 까닭.'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가 이곳으로 오게 된 까닭'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장에는 '내력'이 적절합니다. 직업과 관련된 과거의 경험들을 일컫는 말로는 '경력' 또는 '이력'이 적절하고, '병을 앓았던 경험'을 가리키는 말은 '병력'입니다.

03

'참상'은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이나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쟁의 참상과 민족의 아픔'이라는 표현으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참상'에는 갑작스럽다거나 뜻밖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04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하다.'라는 '먹다'의 뜻을 가진 것은 '스무 살이나 먹고서도'입니다.

오답 풀이

① 입으로 약을 삼켜 배 속에 들여보내는 것입니다.
② 두 골을 '먹었다'고 할 때는 경기에서 점수를 잃었다는 뜻입니다.
③ 마음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④ 꾸중을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05

㉠ 방 안에서 '썰렁한 곳'은 '윗목'입니다.
㉡ 방 안에서 '따뜻한 곳'은 '아랫목'입니다.
㉢ '따뜻한 기운'을 '온기'라고 합니다.
㉣ 오는 사람을 나가서 맞이하는 일을 '마중'이라고 합니다.

06

'발소리 타박타박 / 안 들리네'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엄마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린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해는 시든 지 오래', '어둡고 무서워'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열무 삼십 단을 이고 / 시장에 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③ '빈방에 혼자 엎드려 훌쩍거리던'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⑤ '아주 먼 옛날 / 지금도 내 눈시울을 뜨겁게 하는'이라는 표현을 보면 현재 화자는 엄마를 기다리던 시절을 '옛날'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07

'유년'은 어린 시절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 엄마를 기다리느라 무서워 떨며 울던 때를 떠올린 화자는 이 기억이 어린 시절의 기억 중 '윗목'에 해당하는 기억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08

'나'가 스스로를 '찬밥'처럼 느꼈다는 표현은 있지만, 찬밥을 먹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어둡고 무서워'라고 말하고 있으므로 무서워하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② 과거의 일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슬프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어두운 곳에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고 독자들도 유사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⑤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라고 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혼자 있는 시간을 때우고자 일부러 천천히 숙제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81쪽

01 (1) ② (2) ② (3) ① (4) ② (5) ② (6) ① **02** 예 몸이 나라지니 말뚝잠이라도 잘 수 있을 것 같다.

01

(1) 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있으므로 ②가 맞습니다.
(2) 뛰어놀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피곤하여 나른해짐을 뜻하는 ②가 적절합니다.
(3) 모기에 물린 상태이므로 ①의 설명이 적절합니다.
(4) 가려움이 심하면 잠을 잘 이룰 수 없었을 것이므로 ②가 적절합니다.
(5) 공부하다가 지쳐 앉은 채로 잠든 상황이므로 ②가 적절합니다.
(6) 진우는 많이 피곤한 상태이므로 '각다분하다'는 힘들고 고되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02

'나비잠, 나라지다, 무럽다, 토끼잠, 말뚝잠, 각다분하다' 중 두 가지를 골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6 19. 11. 15. 오후 5:37

13강 시 | 옛 시조에 나오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83쪽

◉ • 로써 • 으로서

- 밀을 재료로 주식을 삼으므로 어떤 물건의 재료나 원료를 나타내는 조사인 '로써'가 적절합니다.
- 학급 회장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한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지위나 신분,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인 '으로서'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84~86쪽

01 (1) 백로 (2) 구천 (3) 대붕 **02** (1) ㉢ (2) ㉡ (3) ㉠
03 ④ **04** ④ **05** ② **06** ㉠ 구만리장천, ㉡ 대붕 **07** ①
08 지조, 절개 **09** ⑤

01

(1) '백로(白鷺)'는 몸이 흰색인 새입니다. '흰 날개를 빛내는 백로들이 떼 지어' 있는 광경에 대한 문장입니다.

(2) '구천'에는 '죽은 뒤에 넋이 돌아가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만 하다가 돌아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3) '대붕'은 상상 속의 동물로, 하루에 구만 리를 날아간다는 새입니다. 하루에 구만 리를 날려면 날갯짓 한 번에 온 세상을 휘저을 수 있는 날개를 가지고 있겠지요.

02

(1) 소나무를 뜻하는 '송'과 대나무를 뜻하는 '죽'이 합해진 말이 '송죽'입니다.

(2) '백로(白露)'는 맑고 깨끗한 이슬이라는 뜻으로, 이십사 절기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3) 아득히 높고 먼 하늘을 가리키는 말은 '구만리장천'입니다.

03

'벽계수', '옥계수', '청강', '청수'는 모두 '맑고 푸른 물'을 가리키는 말이고, '청산'은 '푸른 산'을 가리키는 말이므로, '청산'의 의미가 나머지 단어들과 다릅니다.

04

㉠ 두엄(거름으로 쓰고자 모아 놓은 더미) 위에 두꺼비가 달려 올라간 상황에 대한 진술입니다.

㉡ 백송골이 나타난 것은 파리를 잡아먹으려던 두꺼비에게 위험한 상황이지만, 두꺼비를 잡으려는 사람에 대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 넘어지면 멍들 뻔했다고 두꺼비가 혼잣말하며 위안하고 있습니다.

05

㉠ '굳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모양.'이라는 뜻이 쓰인 문장은 '네가 정 싫다면 할 수 없지.'로, 굳이 싫다면 어쩔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오답 풀이

① '모난 돌이 정 맞는다.'는 모가 나 있는 돌은 모를 없애기 위해 돌을 쪼는 연장으로 맞는다는 뜻입니다.

③ '연민의 정을 갖게 되었다.'는 불쌍히 여기는 감정을 느껴서 생기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④ '정 붙이다.'에 쓰이는 '정'은 정[3]의 [2]의 뜻으로, 친근하다고 느끼는 마음이 생기지 못하고 전학 가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⑤ '이 약은 한 통에 삼십 정이 들어 있어 한 달 분량입니다.'의 '정'은 알약을 세는 단위입니다.

06

통이 큰 회장 후보가 되고 싶다고 말하는 '딸'이 비유를 들 만한 대상은 '대붕'이고, 이 '대붕'은 '구만리장천'을 날갯짓 한 번으로 날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07

이 작품은 물, 돌, 소나무, 대나무, 달의 미덕을 예찬하는 작품입니다. 자연의 순환 원리를 예찬하는 작품은 아닙니다.

오답 풀이

② 수석(水石)과 송죽(松竹), 달을 언급하며 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구천에 뿌리 곧은 줄'을 안다고 하고 있는데, 구천은 땅속 깊은 곳이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④ '솔아 너는 어찌 눈서리를 모르는다'라고 한 것은 소나무가 눈서리를 맞고도 변함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⑤ '두어라 이 다섯밖에 또 더하여 무엇하리'라고 하며 자연 속의 친구들 외에 다른 친구들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7 19. 11. 15. 오후 5:37

08

솔의 뿌리가 곧다는 사실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선비들이 지켜야 할 지조와 절개와 관련이 있습니다.

09

바뀌고 변화하는 것보다 한결같은 모습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물과 돌, 나무들을 '벗'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자연을 벗하여 살고자 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② 소나무더러 눈서리를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소나무가 사철 푸르다는 뜻이고, 이러한 소나무의 모습을 좋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③ 시조의 화자가 돌, 소나무, 달 등 자연을 벗 삼아 지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감상입니다.

④ 소나무의 뿌리가 곧다는 사실로 소나무의 특징을 언급하고 있으므로, 곧고 강직한 성품에 가치를 두는 사람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강 시 | 필수 개념어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90~92쪽

01 (1) 운율 (2) 시적 화자 (3) 비유 (4) 사전적 의미 **02** (1) ㉢ (2) ㉡ (3) ㉠ (4) ㉣ **03** ② **04** ④ **05** ㉠ 어조, ㉡ 비유 **06** ④ **07** 화자, 반어 **08** ②

01

(1) 시에서 비슷한 소리의 특성이 반복되어 느껴지는 리듬감을 운율이라고 합니다. 시는 글쓴이의 정서와 사상을 운율이 있는 언어로 표현하는 문학의 한 갈래입니다.

(2) 시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이를 '시적 화자'라고 합니다. 시를 읽을 때에는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3)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 다른 것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을 '비유'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표현을 마음을 가시로 찌른다고 비유적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4) 단어가 가리키는 여러 의미 중 사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의미를 '사전적 의미'라고 합니다. '산이나 언덕을 넘어다니도록 길이 나 있는 곳.'은 '고개'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02

(1)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같이, 처럼, 듯이'와 같은 말로 연결하여 직접 비유하는 것입니다.

(2) '의인'은 사람이 아닌 것을 사람인 것처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무들이 반갑다고 인사한다고 표현한 것은 나무들을 사람처럼 나타낸 것입니다.

(3) 청각적 심상은 귀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4) 후각적 심상은 코로 냄새를 맡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입니다.

03

'형상화'는 모습이 분명하지 않은 것을 구체적이고 명확한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연습을 하자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04

'멋진 시상'이란 시를 짓기 위한 멋진 구상이 떠오른 것을 말하므로 ④가 ㉠을 사용한 문장에 해당합니다.

오답 풀이

① 시에 나타난 사상, 감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하였다는 뜻입니다.

② 혼자만의 시적인 생각이나 상념에 빠져들었다는 의미입니다.

③ 시에 나타난 사상, 감정의 흐름에 따라 화자의 정서가 변화한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⑤ 시 속에서 화자가 머무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의 내용(사상과 감정)이 전개된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05

㉠ 앞서 학생이 말하는 말투에 불만스러운 감정이 실려 있었던 것에 대해 말하고 있으므로 '어조'가 적절합니다.

㉡ 학생이 '방학도 시험 기간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그것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유'라는 말이 들어가야 합니다.

06

맞춤법에 어긋나는 시어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8 19. 11. 15. 오후 5:37

오답 풀이

① '너'의 하교하는 모습, 인사하는 모습, 꽃을 바라보는 모습 등 여러 행동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② '너는 참 바보다'를 여러 번 반복하였는데, 반복은 운율을 느끼게 합니다.
③ '너'의 여러 행동을 묘사하여 너그럽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예절 바른 '너'의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⑤ '나'가 그림자처럼 '너'의 뒤를 졸졸 따라다닌다고 언급하여 '나'가 '너'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07

시 속에서 '나'라고 지칭하는 말하는 사람을 '화자'라고 합니다. 또한 시 속에서 '넌 바보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너'가 선량하고 예절 바른 친구임을 드러내기 위한 말이므로 '반어'적 표현입니다.

08

자주 지각하는 학생에게 '일찍도 오는구나!'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특성을 반대로 표현하여 그가 늦는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지적하기 위한 반어적 표현입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93쪽

01 ㉢ **02** 감탄고토(甘呑苦吐)

01

㉢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라는 속담은 '자기에게 이익이 될 때는 그 사람을 가까이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외면함.'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눈이 와야 솔이 푸른 줄 안다'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야 그 사람의 진짜 됨됨이를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고슴도치도 살 친구가 있다'는 누구에게나 친하게 사귀고 지낼 친구가 있기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는 쉬운 일이라도 힘을 모으면 훨씬 쉽다는 의미입니다.

02

'감탄고토(甘呑苦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뜻으로, 자신의 비위에 따라서 사리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답 풀이

• '간담상조(肝膽相照)'는 서로 속마음을 털어놓는 친한 사이를 의미합니다.
• '감언이설(甘言利說)'은 남을 속이기 위해 하는 듣기 좋은 말을 의미합니다.
• '견리사의(見利思義)'는 이익을 취할 때는 그것이 정의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5강 소설 | 가족, 명절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95쪽

◉ • 체 • 채

• 일부러 모르는 것처럼 한 것이므로 '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나 모양.'을 뜻하는 '체'가 적절합니다.
• 책상에 앉은 상태로 잠이 들어 버린 것이므로 '이미 있는 상태 그대로 있음을 나타내는 말.'인 '채'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96~98쪽

01 (1) 여의고 (2) 엿판을 (3) 슬하에 **02** (1) ㉡ (2) ㉣ (3) ㉢ (4) ㉠ **03** ③ **04** ⑤ **05** ⑤ **06** ㉠ 가지런하게, ㉡ 삼삼해서 **07** ③ **08** (1) 대목 (2) 추석치레 **09** ⑤

01

(1) '여의다'는 '죽어서 이별하다.'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일찍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친척들의 도움으로 살아왔다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2) '엿판'은 엿을 담는 목판인데, 엿장수는 이것을 메고 다닙니다.
(3) '슬하'는 '무릎 아래.'라는 뜻으로, 부모가 자녀들을 돌보는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말입니다.

02

(1) 짙은 남빛을 띤 붉은색은 '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2) 짙은 청색에 적색 빛깔이 풍기는 색은 '감색'이라고 불렀습니다.
(3) 고려청자와 같은 푸른빛은 '비색'이라고 합니다.
(4) 옥 빛깔과 같은 흐린 초록색은 '옥색'이라고 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19 19. 11. 15. 오후 5:37

03

'曾(증)'에는 '거듭', '겹치다'라는 뜻이 있어서, 손자의 딸, 아들의 손녀 등을 '증손녀'라고 부르고 부모님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證(증거 증)'이 쓰입니다.

04

㉠ '자별히'는 '남다르고 특별하게.'라는 뜻입니다. '분별 있게'는 생각이나 판단이 바른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05

⑤에서 '무를 채를 칠 때'라고 할 때는 채[4]의 의미로 쓴 것입니다. 동음이의어 관계가 아닙니다.

오답 풀이

① 낙지를 살아 '있는 상태 그대로' 먹는 것이라는 의미이므로 채[1]을 바르게 쓴 것입니다.

② 국수를 삶은 후 물기를 뺄 때 쓰는 도구는 체[1]이므로 바르게 탐구한 내용입니다.

③ '채 닦지 못하고'는 닦는 동작이 완전히 다 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④ '아는 체'라고 할 때는 의존 명사인 체[2]가 쓰였으므로 띄어 쓰는 것이 맞습니다.

06

완성된 요리들을 고르고 나란하게 놓으면 보기 좋다는 뜻이므로, ㉠에는 '가지런하게'가 적절합니다. '삼삼해서'는 싱거운 듯하면서도 맛이 있는 음식의 간을 의미하므로, ㉡은 간이 '삼삼해서'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07

남이는 옥색 고무신을 감춰 두고 특별한 날에만 신었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③과 같이 '즐겨 신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답 풀이

① 옥색 고무신을 매우 아껴 신고, 신고 나서 잘 닦아서 놓는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② '철수'가 추석치레 선물로 남이에게 옥색 고무신을 사 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④ '철수'가 '남이'에게 추석치레로 무엇을 사 주는 것이 좋겠느냐고 물었던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⑤ '남이'가 옥색 고무신을 갖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08

(1) 물건이 많이 팔리는 시기를 대목이라고 합니다.

(2) '추석치레'는 추석날에 꾸미거나 추석맞이로 선물하는 것을 일컫는 말입니다.

09

'한껏 해야 크림이나 한 통 사 줄 생각'이었다는 말이 글에 제시되어 있으므로, 철수가 남이에게 크림을 사 주려고 작정했던 이유를 더 알아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삼백육십 원이 꽤 큰 돈인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므로, 지금의 화폐와 가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알아보고 철수가 느꼈던 부담을 이해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② '아끼는 신이었으니 남이인들 여간 속이 상했기에'라는 표현이 이 글에 나타나 있습니다. 옥색 고무신에 어떤 일이 생겼기에 남이가 누군가를 때리고 꼬집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③ 추석치레로 뭔가를 사 주기로 했던 철수와 남이, 그리고 철수 아내는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④ 남이가 때리고 꼬집은 사람이 누구인지는 글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작품을 읽으며 알아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99쪽

01 ㉮ 눈부처 ㉯ 가자미눈 ㉰ 샛별눈 ㉱ 해사하다 ㉲ 매무새 ㉳ 사랑옵다 **02** 매무새, 샛별눈

01

㉮ 눈동자에 비친 사람의 모습을 통해 '눈부처'를 나타냄을 알 수 있습니다.

㉯ 옆으로 흘겨보는 눈을 '가자미눈'이라고 부릅니다.

㉰ 눈동자가 샛별처럼 반짝이는 모습을 통해 '샛별눈'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 말끔한 옷차림, 맑게 웃는 모습은 모두 '해사하다'라는 단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 단정한 옷차림이 되도록 잘 손질하고 있는 그림이므로 '매무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 아기의 귀여운 모습이 몹시 사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느낄 정도로 귀여운 대상을 '사랑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0 19. 11. 15. 오후 5:37

02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자르고 온 것을 보기 좋다며 칭찬하고 있으므로 '매무새'가 적절합니다. 또한 샛별같이 반짝거리는 눈을 '샛별눈'이라고 합니다.

16강 소설 | 인간관계와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01쪽

◉ • 휘몰고 • 휘감았다

- 태풍이 장마 전선을 한쪽으로 몰고 간 것이므로 '매우 세차게 한 방향으로 몰다.'라는 뜻인 '휘몰다'가 적절합니다.
- 순식간에 공포가 온몸을 감싼 것이므로 '어떤 물체를 다른 물체에 휘둘러 감거나 친친 둘러 감다.'라는 뜻인 '휘감다'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02~104쪽

01 (1) 수작 (2) 천대 (3) 앙갚음 **02** ② **03** (1) 서슬에 (2) 허물에도 **04** ③ **05** ④ **06** ㉠ 끄나풀, ㉡ 서슬 **07** ④ **08** 허물 **09** ④

01

(1) 서로 말을 주고받는 것을 '수작'이라고 합니다. 엉뚱하게 말을 걸던 아이들이 많았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2) 천하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하는 것을 '천대'한다고 합니다. 함부로 천하게 대우하거나 푸대접해서는 안 된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3) 남이 저에게 해를 준 대로 그에게 해를 주는 것을 '앙갚음'이라고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쪽에서 또 해를 미칠까 봐 무서웠다는 뜻입니다.

02

②의 '휘감다'는 둘러 감는 의미의 '감다'에 '마구'의 의미가 더해진 말입니다. 머리나 몸을 물로 씻는 의미의 '감다'와는 다릅니다.

오답 풀이

① 상황이 기대에 맞지 않은 것이므로 '기대에 맞지 아니하거나 일정한 기준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인 '어긋나다'의 쓰임은 적절합니다.

③ 사이가 좋던 친구와의 관계가 틀어진 것이므로 '지내는 사이가 나쁘게 되다.'라는 뜻인 '어그러지다'의 쓰임은 적절합니다.

④ 먹을 것을 사 주고 사 준 티를 내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서거나 지나치게 자랑하다.'라는 뜻인 '생색내다'의 쓰임은 적절합니다.

⑤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마구 내세우는 것이므로 '사람이나 일을 제 마음대로 마구 다루다.'라는 뜻인 '휘두르다'의 쓰임은 적절합니다.

03

(1) 도둑을 잡겠다는 동네 사람들의 '강하고 날카로운 기세'를 말하는 문장이므로 '서슬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허물'은 '잘못 저지른 실수.'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과거의 잘못에도 전혀 굴하지 않았다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04

'빙자'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핑계로 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은 탐욕스런 관리들의 부패한 실상을 고발하는 내용으로, 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을 핑계로 세금을 덧붙여 백성들에게 돈을 거두어들이는 모습을 비판하는 부분입니다.

오답 풀이

① '제 배를 채울 것을 목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어 가는 이유로 글의 전체 내용에는 알맞지만, '빙자'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핑계 삼는다는 의미이므로 '이를 빙자하여'를 설명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깡그리 긁어 간다는 것은 고을 우두머리들이 세금을 지나치게 많이 걷어 간다는 것을 말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이를 빙자하여'는 다른 것을 핑계 대고 세금을 걷는다는 뜻이므로 깡그리 긁는다는 표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④ 국가에서 미리 모아 두고 금고를 채워 두어 국가적으로 어떤 비상사태나 무슨 일이 생길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은 그렇지 않아, 비상 상황이 생기면 지방으로부터 세금을 한 번 더 거두어들이는 일이 많았던 상황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들이 백성들에게 이를 핑계 삼아 백성들로부터 긁어 갔던 것은 아닙니다.

⑤ 나라에서 두 번 세금을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고을 우두머리들이 세금을 걷는 핑계가 됩니다. 이미 백성들이 다섯 몫을 냈다는 것은 그 핑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욱.indd 21 19. 11. 15. 오후 5:37

05

④에서 '네 처지를 동정했다'는 것은 '가엾게 여겼다'는 것이지 도와주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동정[2]의 1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오답 풀이

① 동정[1], 동정[2], 동정[3]은 모두 명사로 품사가 같습니다.
② 동정[1]은 고유어이고, 동정[2]와 동정[3]은 한자어 표기가 사전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 한복 저고리 깃 위에 덧대는 헝겊 부분에 때가 탔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⑤ 갇힌 사람들이 바깥의 분위기, 상태를 엿보았다는 뜻의 문장입니다.

06

㉠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는 의미의 '끄나풀'이 들어가야 합니다.
㉡ 독립군의 기세가 날카로운 것을 일컫는 '서슬'이 들어가야 합니다.

07

시골과 서울에서 돌아다니며 살았던 것은 문기의 아버지입니다.

오답 풀이

① '일찍이 어머니를 여의고'라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지만 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문기의 아버지는 '시골, 서울로 돌아다니는 사람이고'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⑤ '수만이가 시켜서 한 일이니까 잘못이 없다는 것이지만 당초에 그것은 제 허물을 남에게 밀려는 얄미운 구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8

자신의 과거의 실수를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의 문장이니 '허물'이 알맞습니다.

09

삼촌과 살아온 것이 문기의 성품을 어긋나게 만들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답 풀이

① '생각할수록 낯이 뜨거워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기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하고 반성하는 것입니다.
② 본문에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과거의 모습이 나타나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③ 삼촌이 어려서부터 문기를 길러 줬던 일을 떠올리며 고마워하고 있고, 그런 삼촌의 기대에 어그러지지 않기로 결심했지만 어그러진 자신이 된 것 같아 미안해하고 있습니다.
⑤ 문기도 잘못을 했으면서 수만이 핑계를 댔던 적이 있고, 지금 문기는 그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독자가 문기와 같은 경험을 했던 것을 떠올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17강 소설 | 옛날 생활 모습과 관련한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07쪽

◉ • 뜨기 • 내기

- '-뜨기'는 '부정적 속성을 가진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겁이 많고 어리석으며 다부지지 못하여 어수룩하고 얼빠져 보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인 '얼뜨기'에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 '-내기'는 앞말에 그런 특성을 지닌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사람.'을 이르는 말인 '풋내기'에 사용하기에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08~110쪽

01 (1) 남폿불 (2) 더부살이 (3) 풋내기 (4) 촌뜨기 **02** (1) 품삯 (2) 석간신문 (3) 신출내기 **03** ② **04** ① **05** ③ **06** ㉠ 마름, ㉡ 뒤주 **07** ④ **08** 시궁창 **09** ④

01

(1) '남폿불'은 과거에 석유를 이용해 방을 밝히던 조명 기구입니다. 그 당시에는 어두운 밤이면 남폿불을 켜 방을 밝혀야 했습니다.
(2) 남의 집에서 먹고 자면서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는 일 또는 남에게 얹혀사는 일을 '더부살이'라고 합니다. 남의 집에서 살아갔다는 의미의 문장이므로 '더부살이'가 적절합니다.
(3) '풋내기'는 아직은 어떤 분야에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인데, '새로 입사한'이라는 말이 있으므로 '풋내기'가 적절합니다.
(4) '촌뜨기'는 도시가 아닌 촌 출신이라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서울 온 지 한참인데'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2 19. 11. 15. 오후 5:37

02

(1) '품팔이'는 품삯을 받고자 일하는 것이고, '품삯'은 일을 한 대가로 받는 돈이므로, '하루하루 받는 품삯을 모아'라고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학교 수업이 끝난 뒤인 저녁에 배달할 수 있는 신문은 '석간신문'입니다. '조간신문'은 아침에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3) '신출내기'는 아직은 어떤 분야에 처음이라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낮잡아 일컫는 말인데, '막 우리 모임에 들어온'이라고 했으므로 '신출내기'가 적절합니다.

03

'양은', '양옥', '양장', '양철'은 모두 '서구식의', '외국에서 들어온'의 의미를 더해 주는 '양(洋)'이 쓰인 말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양립(兩立)'은 '둘'을 뜻하는 한자 '양(兩)'이 쓰인 표현입니다.

04

'이기'는 '편리한 기계나 기구.'라는 뜻인데, '실용적 수단', '유익한 도구', '이로운 기구', '편리한 기계' 등으로 바꾸어 쓰는 것이 가능합니다. '과학적 원리'는 의미가 다르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05

ㄱ의 '하릴없이'는 쫓겨난 흥부의 상황이므로 '할 수 없이'가 적절합니다. ㄴ의 '하릴없이'는 피란민과 유사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므로 '틀림없이'가 적절합니다. ㄷ의 '하염없이'는 거절당한 사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므로 '멍하게'가 적절합니다. ㄹ의 '하염없이'는 슬픈 소식을 듣고 눈에서 눈물이 계속해서 흐르는 상황이므로 '계속해서' 또는 '그침 없이'라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06

㉠ '마름'은 '땅 주인을 대신하여 농지를 관리하는 사람'이므로 주변의 다른 소작농보다 부유한 가정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뒤주'는 곡식을 담아 두는 네모난 상자인데, 큰 나무 장롱에 쌀을 두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뒤주'가 적절합니다.

07

킥킥댄 것은 남자애들인데, 수택이와 짝을 하고 싶지 않아 걱정했던 것은 여자애들이므로 적절하지 않은 진술입니다.

오답 풀이

① 수택이가 우리 반에서 제일 도수가 높은 안경을 쓴 아이 옆에 앉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였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나는 그만 숨이 멎어 버리는 것 같았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아이들은 수택이가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⑤ '수택이는 석간신문을 배달하는 아이였어.'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8

이 글에는 수택이의 몸에서 시궁창 냄새 같은 것이 났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물이 고여서 썩어 있는 곳의 바닥.'을 '시궁창'이라고 합니다.

09

이 글은 수택이가 '나'를 짝으로 선택해 곤혹스럽던 상황에 대해 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이 글 내용의 일부만 반영하고 수택이와 '나'가 짝이 되어 '나'가 당혹스럽던 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제목입니다.

② 이 글의 전체 줄거리와 큰 관련이 없습니다.

③ 이 글은 선생님께 자신이 원하는 짝을 밝히거나 자신의 짝을 소개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⑤ 수택이와는 예전부터 한 반 친구였으므로 맞지 않습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11쪽

01 ㉤ **02** (1) ㉡ (2) ㉠ (3) ㉢

01

㉤ '타산지석(他山之石)'이라는 한자 성어는 '훌륭하지 못한 사람이나 훌륭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금과옥조(金科玉條)'는 금이나 옥처럼 귀중히 여겨 꼭 지켜야 할 법칙이나 규정을 의미합니다.

㉡ '금란지교(金蘭之交)'는 금과 난초처럼 친구 사이의 소중한 우정을 의미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3 19. 11. 15. 오후 5:37

ⓒ '하석상대(下石上臺)'는 '아랫돌 빼어 윗돌 괴기.'라는 뜻으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게 임시방편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를 일컬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02

(1) 사람이나 사물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얻음을 이르는 한자 성어로는 다른 사람의 잘못된 일과 실패를 거울삼아 나의 가르침으로 삼는다는 뜻의 '반면교사(反面敎師)'가 있습니다.

(2) 부지런히 일하면서 어렵게 공부하는 것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로는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책을 읽는다는 뜻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을 게을리하지 않는 모습을 의미하는 '주경야독(晝耕夜讀)'이 있습니다.

(3)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을 만큼 성장했음과 관련 있는 한자 성어로는 '푸른색은 쪽[藍]에서 나왔지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는 뜻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나음을 비유하여 이르는 '청출어람(靑出於藍)'이 있습니다.

18강 소설 | 마음 · 태도를 표현하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13쪽

◉ • 거쳐야 • 걷혔습니까

- 먼저 회의라는 단계를 지나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라는 뜻인 '거치다'가 적절합니다.
- 회비가 다 모아져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여러 사람에게서 돈이나 물건 따위가 거두어지다.'라는 뜻인 '걷히다'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14~116쪽

01 으름장, 대거리, 만감 **02** (1) ㉡ (2) ㉢ (3) ㉠ **03** ④
04 ③ **05** ① **06** ㉠ 치욕, ㉡ 탄식, ㉢ 으스대 **07** ③
08 속절없이, 설욕 **09** ②

01

'으름장'은 으르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대거리'는 맞서서 대드는 것, 혹은 말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숙제를 해 오지 않는 학생은 큰 손해를 볼 거라고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겁을 주셨는데, 학생이 장난스레 맞서서 대드는 일이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온갖 감정이 다 떠오르는,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지으신 것입니다.

02

(1) '으스대다'는 '보기에 좋지 않게 우쭐거리며 뽐내다.'라는 의미입니다.

(2) '속절없다'는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3) '맹랑하다'는 '생각하던 바와 달리 허망하다.'라는 뜻입니다.

03

'힐난'은 트집을 잡아 거북할 만큼 따지고 드는 것이고, '비방'은 남을 깎아내리거나 해치는 말을 하는 것, '문책'은 잘못에 대해 책임을 묻고 꾸짖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 상대 후보가 우리 후보에 대해 거짓으로 깎아내리는 말을 한 것이므로 '비방'이 적절하고, 두 번째 문장은 눈치 없이 실수를 한 나에게 어머니가 거북하게 따지는 눈빛을 보낸 상황이므로 '힐난'이 적절합니다. 세 번째 문장은 관리가 소홀한 것에 대해 경찰이 책임을 묻는 상황이므로 '문책'이 적절합니다.

04

'곤욕'은 심한 모욕이나 참기 힘든 일로, '곤욕을 치른다.'고 하면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굴욕', '수모', '모욕', '창피'를 당하게 되었다고 하면 '곤욕'과 비슷하지만, '과욕'은 지나친 욕심을 뜻하므로 '과욕을 부리게'와 바꿔 쓸 수 없습니다.

05

'장마가 걷히다.'라고 하면 '장마를 만들어 내던 구름이 흩어져 없어지다.'라는 뜻이므로, 장마가 끝난 후 무더위가 찾아왔다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오답 풀이

② 구름이 흩어져 없어졌다는 뜻이므로 '구름이 걷힌 아침 하늘'이 바른 쓰임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4 19. 11. 15. 오후 5:37

③ 회의라는 과정을 밟아 결정했다는 뜻이므로 '회의를 거쳐'가 바른 쓰임입니다.
④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는 뜻이므로 '돌부리에 거쳐'가 바른 쓰임입니다.
⑤ 이불을 누군가가 말아 올렸다는 뜻이므로 '이불이 눈군가에 의해 걷히는'이 바른 쓰임입니다.

06

큰 점수 차이로 졌다면 창피스럽다는 의미로 '치욕'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상대편이 계속 골을 넣었다면 사람들이 큰 한숨을 쉬는 '탄식'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치욕적인 상황에서 내기에 이겼다고 우쭐거리며 뽐내는(=으스대는) 오빠를 보며 화가 났던 것입니다.

07

'나'의 수탉이 피가 흐르는 것은 점순이의 수탉과 싸움을 해서이지, 점순이가 수탉을 때린다는 내용은 글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대거리를 못해서 몹시 분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점순이가 모이를 쥐고 와서 닭을 꼬여 낸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④ 눈물까지 불끈 솟을 정도로 분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⑤ 닭에게 고추장을 먹여 기운이 뻗치면 점순이 닭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08

'단념할 수밖에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이.'라는 뜻을 가진 말은 '속절없이'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음.'은 '설욕'이 적절합니다.

09

점순이를 '나'가 울렸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오답 풀이

① '나'는 분하고 눈물이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닭싸움에서 자꾸 지는 것이 속상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③ '나'는 점순이가 점순이네 수탉을 몰고 와서 '나'의 수탉과 쌈을 붙이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④ 점순이가 싸움을 붙이는 상황도 싫다고 하고 있고, 점순이네 수탉이 험상궂게 생겼다고 언급하며 그 수탉이 '나'의 수탉에게 상처를 내 놓는 것에 대해서도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⑤ 점순이는 '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나'의 수탉을 꼬여 내기까지 하면서 자꾸 싸움을 붙입니다.

19강 소설 | 고전 소설에 나오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19쪽

◉ • 해치고 • 헤치고

- 전염병이 농장의 가축들을 죽게 한다는 의미이므로 '다치게 하거나 죽이다.'라는 뜻인 '해치다'가 적절합니다.
- 배가 물살을 뚫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의미이므로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지나가다.'라는 뜻인 '헤치다'가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20~122쪽

01 (1) 비천한 (2) 길쌈 (3) 수국 **02** (1) ㉣ (2) ㉡ (3) ㉠ (4) ㉢ **03** ② **04** ④ **05** ③ **06** ㉠ 암행어사, ㉡ 축내고, ㉢ 탐관오리 **07** ④ **08** 관찰사, 군수 **09** ①

01

(1) '비천하다'는 지위나 신분이 낮고 천하다는 뜻인데, '왕께서 직접 오시다니요!'라고 하고 있으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을 보러 왕이 직접 온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2) 길쌈은 여자들이 실을 뽑아 옷감을 짜는 일인데, 옛날 여자들이 집에서 해야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3) 용왕이 있는 곳이므로 '바다의 세계.'를 의미하는 '수국'이 적절합니다.

02

(1) 앞을 가로막는 안개를 뚫고 지나간다는 의미입니다.
(2) 학생들을 따로따로 흩어지게 한다는 뜻입니다.
(3) 높은 건물들이 있는 바람에 전망에 손상을 입히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4)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03

'깁기'는 '구멍이 나거나 닳아서 떨어진 곳에 다른 조각을 대거나 그대로 꿰매'는 일이고, '물레질'은 실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짜깁기'는 옷감을 덧대어 꿰매는 것입니다. '지게미'는 술을 거르고 남은 찌꺼기이고, '지에밥'은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5 19. 11. 15. 오후 5:37

술을 집에서 담가 먹기 위해 쌀을 불려 시루에 쪄 만든 밥입니다. '축내는' 것은 일정한 수나 양에서 모자라게 하는 것이고, '축나는' 것은 모자람이 생기는 것입니다. '양말 깁기', '술 거르고 난 지게미', '냉장고의 음식을 다 축내는'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잘 통합니다.

04

'묵은 집에 토담 쌓고'는 '오래된 집 담 쌓기'이고, '대장간 풀무 불기'는 대장간에 불을 지피는 일이고, '초상난 집 부고 전하기'는 '사망 소식을 알리는 일'이고, '십 리 길 가마 메고'는 '먼 길 가는 사람 가마 태우는 일'입니다. 물건을 배달하는 일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05

③에서 낌새를 차렸다는 것은 어떤 조짐을 보고 알아차렸다는 뜻입니다.

오답 풀이

① 음식을 준비해 상 위에 놓은 것에 대한 언급입니다.
② 지켜야 할 예절, 격식을 갖추어 진행하자는 뜻의 문장입니다.
④ 급히 준비한다는 뜻입니다.
⑤ 살림, 가게 따위를 벌이는 일도 '차리다'라고 합니다.

06

조선 시대에, 왕의 명을 받아 몰래 파견되어 지방 관리의 통치와 백성의 생활을 살피던 벼슬은 '암행어사'인데, 몰래 잠복하다가 나타날 때 '암행어사 출도요!'라고 외치곤 했습니다. 백성의 세금을 걷어 놓고 이를 없애 '축내는' 사람들이 '탐관오리'입니다. '탐관오리'는 백성의 재물을 탐내 빼앗는 관리들입니다.

07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것은 제시되어 있지만, 그 이유로 양반이 아내에게 무시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환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이유로 무시당하는 것입니다.

오답 풀이

① 어질고 인사를 잘 차리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고, 가난해서 환자를 계속 빌려다 먹는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②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③ 군수가 양반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 못했다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⑤ 양반이 관아의 곡식을 빌리고 갚지 못해 양반을 옥에 가두라는 지시가 내려왔지만 대책이 없었다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습니다.

08

고을을 순시하러 온 것은 그 도의 으뜸 벼슬인 '관찰사'이고, 이 관찰사가 '군수'에게 양반을 가둘 것을 지시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09

군수가 환자를 빌려준 것이 '양반에게만'이라고 진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② 양반이 환자를 제때 갚지 않아 문제가 된 것이므로 언제 갚았어야 하는 것인지 탐구해 볼 수 있습니다.
③ 군수가 '차마 가두지 못했'다고 되어 있으므로, 환자를 갚지 못한 사람을 벌하는 원칙은 무엇이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④ 양반이 돈을 벌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양반이 돈을 벌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탐구의 방법입니다.
⑤ 양반이 빈곤해지기 시작한 것이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아보면 작품의 사회적 배경을 아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강 소설 I 필수 개념어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26~128쪽

01 (1) 배경 (2) 가치관 (3) 역설 (4) 재구성 (5) 서술자 **02** (1) ㉣ (2) ㉠ (3) ㉢ (4) ㉡ **03** ⑤ **04** ④ **05** ㉠ 가치관, ㉡ 갈등, ㉢ 역설 **06** ④ **07** ②

01

(1) '문학 작품에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환경'을 '배경'이라고 합니다. 현대사를 시간적 환경으로 하여 그려 낸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2) '가치관'은 '사람이 어떤 것의 가치에 대해서 가지는 태도나 판단의 기준'입니다. 봉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이런 기준이 많이 바뀌었다는 의미입니다.
(3) '앞뒤가 맞지 않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진리를 나타내고 있는 말'을 '역설'이라고 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것은 약한 만큼 건강 관리를 잘해서 결국은 오래 산다는 의미이므로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6 19. 11. 15. 오후 5:37

(4) '재구성'은 '다시 새롭게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사건의 앞뒤를 다시 생각하고 짜 본다는 의미입니다.
(5) 소설에서 '사건이나 생각 따위를 차례대로 이야기해 주는 사람'을 '서술자'라고 합니다. 전쟁을 겪은 어린이가 이야기해 주는 작품이라는 의미입니다.

02

(1) '내적 갈등'은 인물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용궁으로 돌아갈까 말까의 선택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내적 갈등'입니다.
(2) '외적 갈등'은 인물과 인물 사이, 인물과 세계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인데, 용궁으로 가자는 자라와 가지 않겠다는 토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외적 갈등'입니다.
(3) 토끼가 용왕의 요구를 비판하는 것은 권력자가 약한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 하는 현실에 대한 '풍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해학'은 재미를 주면서도 동정심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토끼가 생활의 어려움을 익살 맞게 푸념하는 모습은 '해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3

'고전'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에게 널리 읽히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이나 예술 작품이므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과 바꿔 쓸 수 있습니다.

04

시에서 노래하며 다루고 있는 시간적, 사회적 환경이 일제 강점기임을 표현하는 문장이므로 ㉠의 의미에 해당합니다.

오답 풀이

① 배경에는 '주위의 환경'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문장에서의 '배경'은 가족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을 뜻하는 말입니다.
② 집들이 호수를 뒤쪽의 경치로 삼고 있다는 뜻입니다.
③ 마을의 뒤쪽 경치에 논밭이 있다는 뜻입니다.
⑤ 그 일을 둘러싼 주위의 환경 중 정치적인 환경을 파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05

㉠ '가치관의 차이'는 생활하면서 느낀 여러 가치에 대해 가지는 태도나 판단의 기준이 다른 것을 말합니다.
㉡ '갈등을 극복하지 못해'는 생각이 달라 부딪치는 상황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 '슬프지만 아름다운'이라는 모순되는 말을 함께 쓴 표현은 '역설적'이라고 합니다.

06

'어머니'는 '옥희'의 행동 때문에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아저씨'와의 관계로 인한 갈등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오답 풀이

① 옥희가 아저씨 방에서 놀다가 안방에 있는 어머니에게 오는 부분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② '어머니'가 우는 이유를 몰라 '어머니, 왜 울어?'라고 묻고 있습니다.
③ 아저씨가 봉투를 꺼내어 주면서 엄마 드리라고 하는 부분에서 알 수 있습니다.
⑤ '옥희야, 난 너 하나뿐 그뿐이다.'라는 말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07

'나'가 등장하고 있으니 '1인칭' 시점 중 하나로, '나'가 '어머니'와 '아저씨'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29쪽

01 ㉣ **02** (1) ㉡, ⓑ (2) ㉠, ⓐ

01

㉣ '호가호위(狐假虎威)'는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라는 뜻으로, '호(狐)'는 여우를, '호(虎)'는 호랑이를 가리킵니다.

오답 풀이

㉠ '삼인성호(三人成虎)'는 세 사람이 짜면 거리에 범이 나왔다는 거짓말도 꾸밀 수 있다는 뜻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됨을 이르는 말입니다.
㉡ '주마가편(走馬加鞭)'은 달리는 말에 채찍질한다는 뜻으로, 잘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 '형설지공(螢雪之功)'은 옛날 중국의 차윤과 손강이라는 이가 집안이 가난하여, 반딧불이 불빛과 겨울에 내리는 눈에 비친 하얀 빛에 비추어 밤중에도 책을 읽었다는 고사에서 비롯한 말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함을 의미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7 19. 11. 15. 오후 5:37

02

(1) '우이독경(牛耳讀經)'은 '쇠귀에 경 읽기.'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여기서 '우(牛)'는 '소'를 가리킵니다.

(2) '오비이락(烏飛梨落)'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라는 뜻의 한자 성어로, 여기서 '오(烏)'는 '까마귀'를 뜻합니다.

21강 극·수필 | 작품에 나오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31쪽

◉ (1) 행렬 (2) 진열 (3) 출석률 (4) 백분율

모음이나 'ㄴ' 뒤에 오는 '렬', '률'은 '열', '율'로 적고, 그 밖의 경우에는 본래대로 '렬', '률'로 적습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32~134쪽

01 (1) 각색 (2) 반가 (3) 해거름 (4) 염치 **02** (1) ㉢ (2) ㉡ (3) ㉣ (4) ㉠ **03** 증가율, 성장률, 취업률, 자살률, 이혼율 **04** (1) ㉠ (2) ㉣ (3) ㉢ (4) ㉡ **05** (1) 염치 불고 (2) 여명 (3) 국량 (4) 자조적 **06** ㉠ 자긍심, ㉡ 배포 **07** ④ **08** ④

01

(1) 서사시나 소설 등을 희곡이나 시나리오로 고쳐 쓰는 것을 '각색'이라고 합니다.

(2) 양반의 집안을 '반가'라고 합니다.

(3) 해가 지는 무렵을 '해거름'이라고 합니다.

(4) 체면을 부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염치'라고 합니다.

오답 풀이

- '상민'은 '양반이 아닌 보통의 백성.'을 뜻합니다.
- '여명'은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또는 그 무렵.'을 뜻합니다.
- '국량'은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 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을 뜻합니다.

02

'삭정이'는 '살아 있는 나무에 붙어 있는, 말라 죽은 가지.'를 뜻하고, '우듬지'는 '나무 꼭대기에 있는 줄기.'를 뜻합니다. '관솔불'은 '송진이 엉긴 소나무 가지에 붙인 불.'을 뜻하고, '연리지'는 '두 나무의 가지가 하나로 붙어 버린 것.'을 뜻합니다. '연리지'는 그 형태의 특징 때문에 '다정한 부부'의 상징으로도 쓰인답니다.

03

둘째 음절 이후에 '렬', '률'이 오는 경우 모음이나 'ㄴ' 뒤에서는 '열', '율'로 적고, 그밖의 경우는 본래대로 '렬', '률'로 적습니다. 따라서 '증가율', '성장률', '취업률', '자살률', '이혼율'이 맞는 표기입니다.

04

(1) '심심하다'는 '지루하고 재미없다.'를 뜻하므로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2) '심심하다'는 '산이 몹시 깊은 곳에 있다.'를 뜻하므로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3) '심심하다'는 '애도의 마음이 깊고 간절하다.'를 뜻하므로 ㉢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4) '심심하다'는 '맛'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의 의미로 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05

(1) 아픈데 병원비가 없어 체면을 무릅쓰고 돈을 빌리러 왔다는 내용이므로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염치(廉恥)'를 활용한 '염치 불고'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염치 불고'는 '상황이 절박하여 염치 따위는 고려하지 않고'를 의미합니다.

(2) 어둠이 가고 새벽이 밝아 오고 있다고 하였으므로 '희미하게 날이 밝아 오는 빛. 또는 그 무렵.'을 뜻하는 '여명(黎明)'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3) 잘못을 감싸 주는 마음을 말하고 있으므로 '남의 잘못을 이해하고 감싸 주며 일을 능히 처리하는 힘.'을 뜻하는 '국량(局量)'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4) 자기 자신을 비웃는다고 하였으므로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를 뜻하는 '자조적(自嘲的)'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06

엄마는 훌륭한 운동 선수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긍지가 높아졌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자긍심'입니다. '자긍심'은 '스스로에게 긍지를 가지는 마음.'을 뜻해요. 아빠는 그 운동 선수가 지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28 19. 11. 15. 오후 5:37

닌, 어려운 상황에서도 침착성을 잃지 않는 능력을 칭찬하고 있으므로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배포'입니다. '배포'는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또는 그런 속마음.'을 뜻해요.

오답 풀이

- '염치'는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몰염치(沒廉恥)'는 '염치가 없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자조'는 '자기를 비웃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 '자만심(自慢心)'은 '스스로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07

'당신(=엄마)도 집안에서 눈코 뜰 새 없이 일하면서 ~ 자기는 거저 얻어먹는 것처럼 비하했다.'라는 표현에서 엄마도 빠듯한 살림을 유지하기 위해 쉼 없이 일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08

'오금을 못 펴다.'라는 표현은 '마음 놓고 여유 있게 지내지 못하다.'를 뜻합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135쪽

01 ㉮ 뭇바리 ㉯ 너나들이 ㉰ 운김 ㉱ 풋낯 ㉲ 몽니 ㉳ 의뭉하다 **02** 운김, 몽니

01

㉮ 여러 동료가 모인 그림이므로 '뭇바리'를 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친구들이 모여 허물없이 말을 건네고 있으므로 '너나들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 친구들이 모여 있으니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네요.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곳의 따뜻한 기운을 '운김'이라고 합니다.

㉱ 아직 어색한 친구 사이를 나타낸 그림이므로 '풋낯'과 관련이 있습니다.

㉲ 생일인데 가족이 이를 알아주지 못해 심술이 났습니다. 이러한 심술을 '몽니'라고 합니다.

㉳ 겉과 달리 속으로 엉큼한 생각을 하는 것을 '의뭉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02

'운김'은 여러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생기는 기운을 뜻합니다. 한편 '몽니'는 다른 사람들에게 대우받지 못할 때에 내는 심술을 뜻합니다.

22강 극·수필 | 필수 개념어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38~140쪽

01 (1) 독백 (2) 비극 (3) 단막극 **02** (1) ㉢ (2) ㉡ (3) ㉠ **03** ㉠ 방백, ㉡ 지시문, ㉢ 대화, ㉣ 독백 **04** ① **05** (1) 시나리오 (2) 스토리보드 (3) 오버랩 • 한자 성어: 견물생심 **06** ㉠ 로 앵글 숏, ㉡ 클로즈업 숏 **07** ③ **08** ③

01

(1) '독백'은 '상대역 없이 혼자 말하는 대사.'를 의미합니다.

(2) '비극'은 '비극적 결말로 끝나는 연극의 한 종류.'를 뜻합니다.

(3) '단막극'은 '1개의 막으로만 이루어진 연극.'을 말해요.

02

(1) '막'은 '무대의 막이 한 번 오르고 내리는 사이'로 희곡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입니다. '장'은 배경이 바뀌거나 등장인물이 등장하고 퇴장하는 것으로 구분되는 희곡의 구성 단위로 '막'보다 작은 단위입니다.

(2) '인서트'는 'Ins.'로 표현되는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로, 화면과 화면 사이에 다른 화면을 삽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3) '페이드인'은 'F.I.'로 표현되는 시나리오의 특수 용어로, 화면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는 것을 뜻합니다.

03

㉠에서 찬희의 대사는 다른 등장인물들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이므로 '방백'입니다. ㉡은 인물의 몸짓, 행동을 설명하는 '지시문'이며, ㉢은 배우끼리 서로 주고받는 대사인 '대화'입니다. ㉣에서 찬희의 대사는 혼잣말이므로 '독백'에 해당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욱.indd 29 19. 11. 15. 오후 5:37

04

①의 '제재'는 '제재 05'의 '예술 작품이나 학술 연구의 바탕이 되는 재료.'라는 의미로 사용된 반면, 나머지는 '제재 01'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05

(1)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 쓰는 대본은 '시나리오'입니다.

(2) 영상물을 제작할 때 머릿속의 주요 장면들을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 만드는 것을 '스토리보드'라고 합니다.

(3)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을 '오버랩'이라고 합니다.

• (1)~(3)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지우고 남은 글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한자 성어는 '견물생심'입니다. '견물생심(見物生心)'은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을 뜻합니다.

㉠ 스	견	랩	㉡ 토
물	시	버	나
리	㉢ 보	생	오
㉣ 드	㉤ 리	오	심

06

㉠ 촬영 기법 중 아래에서 위를 향해 촬영하는 방법은 '로 앵글 숏'입니다.

㉡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에 가득 차게 찍는 방법은 '클로즈업 숏'이지요.

07

극중에서 개 '월리'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지소와 채랑의 계획은 수영 때문에 일단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상심한 표정을 짓는 지소'라는 지시문과 '망했어. 오늘은 점심시간에 병원 가나 봐.'라는 채랑의 마지막 대사에서 두 아이의 실망감을 짐작할 수 있어요.

오답 풀이

① 시간적 배경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 '낮'입니다.

② 의도치 않게 지소와 채랑의 계획을 훼방하고 있지만 수영이 두 아이의 의도를 눈치채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④ 공간적 배경은 레스토랑 마르셀의 내부에서 외부로 바뀌고 있습니다.

⑤ 부모님 없이, 지소와 채랑 두 아이만 레스토랑 마르셀을 찾아갔습니다.

08

'C.U.(클로즈업)'는 '인물의 얼굴이나 사물을 화면에 가득 차게 찍는 것'을 말합니다.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은 'O.L.(오버랩)'입니다.

Ⅲ | 듣기 · 말하기 / 문법

23강 듣기 · 말하기 | 자료에 나오는 어휘

어휘 더하기 본문 145쪽

◉ 지속

경제 성장이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그렇게 함.'이라는 뜻인 '지속'이 적절합니다.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46~148쪽

01 (1) ② (2) ② **02** (1) ③ (2) ④ **03** ① **04** ③ **05** (1) 지속 (2) 후속 (3) 암묵적 (4) 지역 방언 **06** ㉠ 경청, ㉡ 논점, ㉢ 중립적 **07** ① **08** ⑤ **09** ②

01

(1) '남의 감정, 느낌,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보다 적극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그 사람의 처지에서 느끼고 생각해 주는 행위.'를 뜻하는 단어인 '공감(共感)'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2) 문맥상 '문어(文語: 글말)'의 반대말인 '구어(口語: 입말)'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구어'는 우리가 일상의 대화에서 사용하는 말을 뜻해요.

02

(1) '에두르다'는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다.'를 뜻하며, 비슷한 말로 '돌리다'가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0 19. 11. 15. 오후 5:37

(2) '경청하다'는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 듣다.'를 뜻합니다. 비슷한 뜻을 지닌 말로 '귀담아듣다', '귀여겨듣다'가 있어요.

03

'비하(卑下)'는 '하찮게 여겨 낮추고 깎아내림.'을 뜻하는 말입니다. ①에 제시된 뜻을 지닌 단어는 '비판'입니다.

04

③의 '단속'은 '단속[3]'으로 '끊어졌다 이어졌다 함.'을 뜻합니다. 반면, 나머지 넷은 '단속[1]'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05

(1)의 빈칸에는 '어떤 상태가 오래 계속됨. 또는 그렇게 함.'을 뜻하는 말인 '지속(持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2)의 빈칸에는 '뒤를 이어 계속함.'을 뜻하는 말인 '후속(後續)'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3)의 빈칸에는 '자신의 생각을 밖으로 나타내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는 말인 '암묵적'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4)의 빈칸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말.'을 뜻하는 '지역 방언'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06

㉠ 엄마는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는' 태도가 부족한 토론자를 비판하고 있으므로 '경청(傾聽)'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 토론을 할 때 토론에서 다루기로 한 문제, 즉 논점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이므로 '논점(論點)'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 아빠는 진행자의 편파적 태도, 다시 말해 중립적 태도를 지키지 않는 것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중립적'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중립적'은 '어느 편에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정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논쟁(論爭)'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주장을 말이나 글로 논하여 다투는 것.'을 의미합니다.
- '편파적(偏頗的)'은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또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07

마지막 문단의 '무엇보다 교육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에서 글쓴이가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 차원의 노력과 대책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②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언어폭력은 ~ 쉽게 치유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와 3문단의 '언어폭력에 노출된 학생들은 ~ 신체의 건강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에서 언어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는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③ 이 글은 '언어폭력'에 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④ 2문단에서 학교 폭력 실태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⑤ 1문단의 마지막 문장 중에 '언어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정신적 상처를 주고'에서 언어폭력이 가해자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어요.

08

욕설이나 모욕적인 말을 일컬어 '혐오 표현'이라고 합니다.

09

'어떤 상태를 오래 계속함.'을 뜻하는 '지속적으로'가 ㉡과 바꾸어 쓰기에 적절한 말입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49쪽

01 ㉠ **02** 제 논에 물 대기

01

㉠ '아전인수(我田引水)'라는 한자 성어는 '제 논에 물 대기'라는 뜻으로, 모든 상황을 자기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하고 행동하는 불합리한 태도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답 풀이

㉡ '자가당착(自家撞着)'은 같은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아니하고 모순됨을 의미합니다.
㉢ '조삼모사(朝三暮四)'는 간사한 꾀로 남을 속여 희롱함을 의미합니다.
㉣ '탁상공론(卓上空論)'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한 이론이나 논의를 의미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1 19. 11. 15. 오후 5:37

02

'제 논에 물 대기'는 '아전인수(我田引水)'의 우리말 표현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기에게만 이롭도록 일을 하는 경우'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오답 풀이

- '쇠귀에 경 읽기'는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주어도 알아듣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 '우물에 가 숭늉 찾기'는 일의 순서도 모르고 성급하게 덤빔을 의미합니다.
-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는 힘이나 비용을 아무리 들여도 전혀 성과나 보람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24강 듣기 · 말하기 | 필수 개념어 (1)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52~154쪽

01 (1) 발화 (2) 통일성 (3) 공감적 대화 (4) 상황 맥락 **02** (1) 준언어적 표현 (2) 비언어적 표현 (3) 담화 **03** ③ **04** ③ **05** (1) ㉠ (2) ㉢ (3) ㉡ **06** ㉠ 사회 · 문화적 맥락, ㉡ 상황 맥락 **07** ⑤ **08** • 담화인 것: (나) • 이유: 청자, 맥락, 청자

01

(1) '머릿속 생각이 말로 나타나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발화'입니다.

(2) '글 또는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통일성'입니다.

(3) '상대방의 말을 평가하기보다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대화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공감적 대화'입니다.

(4) '담화의 해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담화 상황과 관련된 맥락으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시간과 장소 등.'을 뜻하는 단어는 '상황 맥락'입니다.

오답 풀이

- '사회 · 문화적 맥락'은 '담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 사회적 배경, 공동체의 가치, 지역, 세대, 계층과 같이 담화의 해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 · 문화적 배경과 관습.'을 뜻합니다.
- '응집성'은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글 또는 담화의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02

말소리의 억양, 강약, 높낮이처럼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는 음성적 요소를 '준언어적 표현(=반언어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표정, 몸짓, 손짓 등 말할 때 이루어지는 신체 동작을 일컬어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해요. 화자와 청자, 내용과 맥락은 '담화'의 구성 요소입니다.

03

㉢에서 아빠는 상대방(딸)이 편하게 이야기를 이어 갈 수 있도록 적절한 질문과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러한 듣기 태도는 '소극적 들어 주기'에 해당합니다.

04

③의 '통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에서 '절감(節減)'은 '아끼어 줄임.'을 뜻하는 단어이며, 여기에 쓰인 '-감(減)'은 '덜다', '줄이다'의 뜻입니다.

05

(1) 담화의 의미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맥락에 따라 해석됩니다. '맥락(脈絡)'은 '말로 표현하고 이해할 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을 의미합니다.

(2)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로 명확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통일성이 없어 무슨 의미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통일성'은 '글 또는 담화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담화를 나눌 때 지시 표현이나 접속 표현을 적절히 사용하면 담화의 응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응집성'은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 글 또는 담화의 내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06

㉠ 외국인 학생은 뜨거운 국물을 먹으며 '시원하다'고 표현하는 한국의 사회 · 문화적 맥락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했던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회 · 문화적 맥락'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 한 학생이 "기온이 아침보다 5도가량 올라갔어."라고 대꾸했다가 앞에 앉은 친구에게 핀잔을 들은 까닭은, 날이 무더워 주위 친구들이 창문을 열기 바라고 있는 상황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황 맥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2 19. 11. 15. 오후 5:37

07

제시된 글에서 글쓴이는 '이러한', '그리고', '즉'과 같은 접속 표현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글의 응집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접속 표현을 부적절하게 사용하여 글의 응집성이 약해졌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오답 풀이

① 2문단에 담화의 구성 요소 4가지(화자, 청자, 내용, 맥락)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② 1문단에 '머릿속의 생각이 ~ 문장 단위로 나타나는 것을 발화라고 한다.', '이러한 발화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담화이다.'에서 '발화'와 '담화'의 개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③ '통일성'은 글의 내용이 하나의 주제를 중심으로 짜임새 있게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은 '담화'라는 주제를 중심으로 글의 내용이 통일성 있게 구성되어 있어요.

④ '응집성'은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글의 내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글의 글쓴이는 '이러한, '이것'과 같은 지시 표현을 적절히 사용해 '응집성'을 높이고 있어요.

08

(가)와 (나) 중 담화에 해당하는 것은 (나)입니다. 그 이유는 담화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화자', '청자', '내용', '맥락'이라는 4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가)에는 '청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에는 담화 구성의 4가지 요소가 모두 갖추어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155쪽

01 ❶ 에누리 ❷ 마수걸이 ❸ 알돈 ❹ 주먹셈 ❺ 도리기
02 예 그동안 열심히 에누리를 해서 아낀 돈이 이렇게 알돈이 되었다.

01

❶ 아주머니가 채소의 가격을 깎고 있으므로 '에누리'가 적절합니다.

❷ '마수걸이'는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입니다.

❸ 몹시 소중한 돈으로 사 준다는 의미에서 '알돈'을 쓸 수 있습니다.

❹ 연필이나 계산기 등이 없으므로 머릿속으로 '주먹셈'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❺ 여러 사람이 돈을 나누어 내어 음식을 장만하는 것을 '도리기'한다고 합니다.

02

'도리기하다, 마수걸이, 알돈, 에누리, 주먹셈' 중 두 가지를 골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25강 듣기·말하기 | 필수 개념어 (2)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58~160쪽

01 (1) 협의 (2) 협상 (3) 강연 (4) 연단 **02** (1) ㉣ (2) ㉠ (3) ㉢ (4) ㉡ **03** ④ **04** (1) 담소 (2) 회담 **05** 해설 참조 **06** ㉠ 논제, ㉡ 논거 **07** ② **08** ③

01

(1) 여러 사람이 협력해 의논하는 것을 '협의'라고 합니다.

(2)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협상'입니다.

(3) 청중 앞에서 강의 형식으로 말하는 것은 '강연'이라고 해요.

(4) '연단'은 연사가 연설을 하기 위해 올라서는 높은 공간입니다.

02

심포지엄, 포럼, 패널 토의, 원탁 토의는 토의의 여러 유형들입니다. 규칙이나 절차 없이 둥근 탁자에 앉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원탁 토의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토의가 심포지엄입니다. 또, 토의자(패널)들 상호 간에 질의응답이 활성화되는 토의 유형이 패널 토의인 반면, 포럼은 토의자와 청중 간의 질의응답이 보다 활성화되는 토의 유형입니다.

03

찬성 측과 반대 측으로 나뉘어 논의하는 것은 '토론'에 해당하므로 ㉠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토론'입니다. ㉡은 찬반 나눔 없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력적 의사소통과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토의'입니다. ㉢은 주장과 견해가 달라 생긴 갈등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3 19. 11. 15. 오후 5:37

을 해결하기 위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는 의사소통 방법과 관계가 있으므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협상'입니다.

04

(1) 친구끼리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담소'입니다.

(2) 경제 협력 방안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가지고 남북 정상이 한자리에 모여서 토의하는 상황이므로 여기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회담'입니다.

05

	①덕			③논
①환	담		②의	제
			결	

06

㉠ 문맥상 '토론의 주제'를 뜻하는 '논제'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뜻하는 '논거'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07

제시된 면담에서 '경찰관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꼈던 때'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추가 질문이 있으면 면담 내용이 더 충실해지겠지요.

오답 풀이

① 경찰관의 두 번째 대답에서 '시민들이 충격에 빠져 있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려면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사건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 강인한 정신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③ 경찰관의 첫 번째 대답에서 '경찰관이 되기 위해 경찰학과에서 공부했다'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④ 경찰관의 마지막 대답에서 '허위 신고나 장난 전화를 하면 정작 위급한 사건 현장에 출동하지 못해 시민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어요.

⑤ 경찰관의 두 번째 대답을 보면, 강인한 정신력 외에도 '추리력'과 '강한 체력'이 경찰관으로서 갖춰야 할 능력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08

제시된 대화와 같은 담화 유형을 '면담'이라고 합니다. 면담은 유익한 정보나 도움을 얻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식 대화입니다.

오답 풀이

㉠ 인물의 품성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담화 유형은 '면접'입니다.

㉣ 상호 타협과 조정을 통해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식은 '협상'입니다.

26강 문법 I 필수 개념어 (1)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64~166쪽

01 (1) 언중 (2) 음성 (3) 울림소리 **02** (1) 역사성 (2) 된소리, 된소리 **03** ① **04** ③ **05** (1) ㉡ (2) ㉢ (3) ㉠ **06** ㉠ 자의성, ㉡ 사회성 **07** ④ **08** ⑤

01

(1) 동일 언어를 사용하는 언어 공동체를 일컬어 '언중'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언어는 언중 사이의 정해진 약속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2) 새 소리, 물 소리와 같은 자연의 소리를 가리키는 '음향(音響)'과 구분해 인간이 내는 소리는 '음성(音聲)'이라고 합니다.

(3) 발음할 때 성대가 울리는 음운을 '울림소리', 성대가 울리지 않는 음운을 '안울림소리'라고 합니다.

02

(1) 시간이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태나 의미가 변화하는 현상을 일컬어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2) 'ㄱ, ㄷ, ㅂ, ㅅ'와 같은 자음을 예사소리, 'ㅋ, ㅌ, ㅍ, ㅊ'와 같은 자음을 거센소리, 'ㄲ, ㄸ, ㅃ, ㅆ'와 같은 자음을 된소리라고 합니다. '내 거'를 '내 꺼'로 적은 것은 예사소리 'ㄱ'을 된소리 'ㄲ'으로 적은 경우이지요.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4 19. 11. 15. 오후 5:37

03

'山(뫼 산)'과 같은 한자는 글자 하나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입니다. 반면 한글은 모음 'ㅏ'가 말소리 [ㅏ]를 나타낼 뿐 그 자체로 어떤 뜻을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한글이 말소리를 기호로 나타내는 '표음 문자'이기 때문이지요. 본문에 '한글은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한다는 말에서 글쓴이는 한글이 표음 문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② 제시된 글에서 글쓴이는, 글자와 소리가 일대일로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개의 말소리와 대응하는 영어에 비해 사용하기가 편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제시된 글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언어의 변화'를 뜻하는 '언어의 역사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④ 제시된 글에 '언어는 사회적 약속이므로 개인이 임의로 바꿀 수 없음'을 뜻하는 '언어의 사회성'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⑤ 한글은 뜻을 나타내는 표의 문자가 아니라 말소리를 나타내는 표음 문자입니다.

04

셋째 음절의 'ㅅ'은 된소리 [ㅆ]으로 발음됩니다.

05

(1) '물'을 지시하는 말이 '물', 'water', '水(물 수)' 등 나라마다 민족마다 다른 까닭은 언어 표현과 그 의미 사이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2) 인간은 제한된 언어를 가지고 다양한 사물과 현상을 무한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러한 언어의 특징을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3) 의미의 차이를 만들어 내는 언어의 최소 단위는 '음운'입니다.

06

㉠ 말과 의미의 관계가 필연적이지 않은 것을 일컬어 '언어의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시계'를 가리켜 '책상'이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는 말과 의미의 관계가 사회적 약속에 따라 정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어의 특성을 일컬어 '언어의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07

첫 번째 문단에서 글쓴이는 문자 언어를 평가할 때 중요한 기준은 음성 언어를 얼마나 정확하고 편리하게 적을 수 있는가에 있으며, 그 기준에서 한글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언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답 풀이

① '한글은 음성(=말소리)을 가장 정확하고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자이다.'라는 문장에서 한글이 말소리를 문자에 반영하는 표음 문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② 이 글에 보면 문자 언어는 '음성 언어와 달리 그 가치에 우열이 있는데'라고 씌어 있습니다. 가치 평가가 가능한 것은 음성 언어가 아니라 문자 언어인 것이지요.

③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⑤ 두 번째 문단에서 오늘날 컴퓨터나 휴대 전화와 같은 디지털 매체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한글의 우수성이 더욱 그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08

모음은 모두 성대를 진동시켜서 소리를 내는 울림소리입니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67쪽

01 ㉡ **02** 해설 참조

01

㉡ '우공이산(愚公移山)'은 '어떤 일이든 끊임없이 노력하면 뜻하는 바를 반드시 이룸.'을 이르는 말입니다.

오답 풀이

㉠ '곡학아세(曲學阿世)'는 진실을 왜곡하는 학문으로 세상 사람에게 아첨함을 의미합니다.

㉢ '주경야독(晝耕夜讀)'은 부지런히 일하면서 열심히 공부함을 의미합니다.

㉣ '형설지공(螢雪之功)'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지런하고 꾸준하게 공부함을 의미합니다.

02

	①박			②유
①곡	학	아	세	비
	다			무
	②식	자	우	환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5 19. 11. 15. 오후 5:37

27강 문법 | 필수 개념어 (2)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70~172쪽

01 (1) 어휘 (2) 고유어 (3) 외래어 **02** (1) ㉡ (2) ㉠ (3) ㉣ (4) ㉢ **03** • 고유어: 바다, 물고기, 함께하는, 누리집 • 한자어: 친구, 가상, 선정 • 외래어: 아쿠아리움, 프로그램, 이벤트 **04** ⑤ **05** (1) × (2) ○ (3) ○ (4) ○ **06** ㉠ 새말, ㉡ 유행어 **07** ⑤ **08** • 단일어: ㉡, ㉢ • 복합어: ㉠, ㉣

01

(1) '단어의 집합'을 '어휘'라고 합니다.

(2) 우리말의 어휘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의 3중 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그중 중국이나 그밖의 외국에서 오지 않은 순우리말을 '고유어'라고 합니다.

(3) '버스(bus)', '커피(coffee)'처럼 외국에서 유입되어 현재는 우리말처럼 쓰는 말을 일컬어 '외래어'라고 합니다.

02

(1)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의 가장 작은 단위(자립성의 최소 단위)'를 일컬어 '단어'라고 합니다. 자립할 수 있는 말에 결합해 문법적 기능을 표시해 주는 '조사'도 '단어'에 포함됩니다.

(2)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의미의 최소 단위)'를 일컬어 '형태소'라고 합니다. 형태소를 더 잘게 나누면 더 이상 의미가 남아 있지 않게 됩니다.

(3), (4) 실질 형태소 한 개로 이루어진 단어를 '단일어',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구성된 단어를 '복합어'라고 합니다. 복합어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로 세분됩니다.

03

'바다', '물고기', '함께하는', '누리집'은 고유어이고, 이 중 '누리집'은 외래어 '홈페이지'를 고유어로 순화한 단어입니다. '친구(親舊)', '가상(假想)', '선정(選定)'은 한자어이고, 아쿠아리움(aquarium), '프로그램(program)', '이벤트(event)'는 외래어입니다.

04

"얼음이 물이 되서 흘렀다."에서 '되서'의 올바른 활용형은 '돼서(=되어서)'입니다.

05

(1) '가을밤'은 '가을'과 '밤'이라는 2개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 "그가 집에 가다."는 '그', '가', '집', '에', '가다'라는 5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 '에'와 같은 조사도 단어입니다.

(3) 동사 '베다'는 '베고 / 베니 / 베면 / 베어서'와 같이 활용하며,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베–'가 어간이고, 어간에 붙는 '–고'는 어미입니다.

(4) '손이 크다.'는 '씀씀이가 후하거나 큼.'을 뜻하는 관용 표현입니다.

06

㉠ 문맥상 '새로 생긴 말'을 뜻하는 단어가 들어가야 하므로 '새말'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새말'은 '신조어'라고도 해요.

㉡ '일시적으로 유행하는 말'을 뜻하는 '유행어'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07

제시된 글에서 글쓴이는 한글학자들이 아름다운 우리말을 찾아내서 '학술 논문'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자주 쓰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08

'시골'과 '이야기'는 하나의 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일어입니다. '우리말'은 '우리(실질 형태소) + 말(실질 형태소)'로 이루어진 합성어이고, '한글학자'는 '한글(실질 형태소) + 학자(실질 형태소)'로 구성된 합성어이니, 두 단어 모두 복합어입니다.

아름다운 순우리말

본문 173쪽

01 (1) ② (2) ① (3) ② (4) ② (5) ② (6) ① **02** 예 휘뚜루마뚜루 봉사를 하다 보니 의외의 좋은 일들이 구메구메 일어나고 있다.

01

(1) 오랫동안 공을 들인 상황이므로, '시나브로'는 ②와 같이 조금씩 조금씩 일이 진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6 19. 11. 15. 오후 5:37

(2) 시간이 없는 와중에도 틈틈이 작품을 완성하였으므로, '구메구메'는 ①과 같이 '남모르게 틈틈이.'라는 뜻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숙제가 너무 많았다는 상황을 고려할 때 ②와 같이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웠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4) 숙제가 많아 힘든 상황에서 애를 썼으므로, '애면글면'은 ②와 같이 '갖은 애를 쓰는 모양.'이라는 뜻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5) 남자가 여자를 멀리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므로, '바람만바람만'은 ②와 같이 '바라보일 정도로 뒤에서 떨어져 따라가는 모양.'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6) 사이가 좋을 때는 가깝게 앉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바투'는 ①과 같이 두 대상이 매우 가깝다는 의미로 적절합니다.

02

'시나브로, 구메구메, 휘뚜루마뚜루, 애면글면, 바람만바람만, 바투' 중 두 가지를 골라 의미가 통하도록 연결하여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28강 문법 I 필수 개념어 (3)

문제로 확인하기

본문 176~178쪽

01 (1) 품사 (2) 문장 성분 (3) 어절 (4) 중심, 주변 • 한자 성어: 언중유골 **02** (1) 관형사, 부사 (2) 접미사(접사), 피동문 (3) 겹문장, 이어진 문장 **03** ㉠ 친절하다, ㉡ 안은문장 **04** ② **05** • 품사: ㉠ 명사, ㉡ 조사, ㉢ 부사, ㉣ 대명사, ㉤ 조사, ㉥ 명사, ㉦ 조사, ㉧ 동사 • 문장 성분: Ⓐ 주어 Ⓑ 부사어 Ⓒ 관형어 Ⓓ 보어 Ⓔ 서술어 **06** 동음이의어 **07** ⑤ **08** ㉠ 관형사, ㉡ 대명사, ㉢ 동사, ㉣ 명사, ㉤ 형용사 **09** ④

01

(1)~(4) '단어'를 그 기능 · 형태 · 의미에 따라 분류한 것을 '품사'라고 합니다. '어절'은 띄어쓰기의 단위이며, '어절'을 문장 안에서의 기능에 따라 분류한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합니다. '다의어'의 의미는 '중심 의미'와 그것으로부터 확장된 '주변 의미'로 이루어져 있어요.

• 표에서 남은 글자를 조합해 만들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언중유골'입니다. '언중유골(言中有骨)'은 '말 속에 뼈가 있다.' 즉, '평범해 보이는 말 속에 평범치 않은 속뜻이 함축되어 있음.'을 뜻하는 말이지요.

성	추	언	문
골	품	장	중
변	유	심	중
어	분	사	절

02

(1) 품사 중 체언을 꾸며 주는 말을 '관형사', 용언이나 부사, 관형사,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말을 '부사'라고 합니다.
(2) '피동문'은 '남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능동문을 피동문을 만들 때 쓰이는 '-이-/-히-/-리-/-기-'는 접미사(피동 접미사)입니다.
(3)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이루어지는 문장을 '홑문장', 두 번 이상 이루어지는 문장을 '겹문장'이라고 합니다. 겹문장은 다시 문장과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는 '이어진문장'과 한 문장 속에 다른 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 '안은문장'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03

"그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은 "그는 사람이다."와 "그 사람은 친절하다."라는 2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겹문장입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친절하다."라는 문장이 "그는 사람이다."라는 문장 안에 들어가 있으므로, "그는 친절한 사람이다."라는 문장은 겹문장 중에서도 '안은문장'에 해당합니다.

04

'뜨다 01'과 마찬가지로 '뜨다 04'도 둘 이상의 뜻으로 사용되는 다의어임을 사전의 자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7 19. 11. 15. 오후 5:37

05

• 품사: '별빛(㉠)'과 '길동무(㉥)'는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이(㉡)', '의(㉤)', '가(㉦)'는 명사 등과 같은 체언 뒤에 붙어 다른 말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사입니다. '언제나(㉢)'는 주로 동사 '되었다'를 꾸며 주는 부사이고, '나(㉣)'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 나타내는 대명사이며, '되었다(㉧)'는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입니다.

• 문장 성분: Ⓒ '나의'는 뒤에 오는 체언 Ⓓ '길동무'를 수식해 주므로 '관형어'입니다. Ⓓ '길동무'는 서술어 '되다'와 호응하므로 '보어'입니다. '보어'는 서술어 '되다', '아니다'와 호응하는 말입니다.

06

나무의 '눈[芽]'과 얼굴의 '눈[目]'은 말소리는 같으나 서로 다른 뜻을 지닌 별개의 단어이므로 두 단어의 관계는 '동음이의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07

제시된 글에 '백색 소음'이 심신을 안정시켜 주는 과학적 원리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추가 설명을 요청하기에 적절한 내용이라 할 만합니다.

08

㉠ '일곱'은 명사 '가지'를 꾸며 주는 관형사이고, ㉡ '우리'는 대상의 이름을 대신해 나타내는 대명사입니다. ㉢ '나오는(나오다)'은 사람 또는 사물의 움직임,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이고, ㉣ '소음'은 대상의 이름을 나타내는 명사이며, ㉤ '나쁜(나쁘다)'은 사람 또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입니다.

09

동사 '밝혀졌다'는 '밝-(어간) + -히-(사동 접미사) + -어지-(보조 용언) + -었-(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 -다(어말 어미)'로 분석됩니다. 먼저 '밝히다'를 살펴보면, 동사 '밝히다'는 형용사 '밝다'에 사동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사 '-히-'가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밝히다'에 피동문을 만드는 보조 용언 '-어지다'가 결합한 형태가 '밝혀졌다'입니다. 그러므로 ⓐ를 피동문으로 만든 것은 접미사 '-히-'가 아니라 보조 용언 '-어지다'입니다.

Ⅳ | 종합 평가

29강 종합 평가 (1)

본문 182~186쪽

01 (1) 바랬다 (2) 늘였다 (3) 벌이고 (4) 지배층, 피지배층 (5) 탐색 (6) 하릴없는 (7) 현재로써는 (8) 전도 **02** (1) 경향 (2) 할애 (3) 감안 (4) 계승 (5) 개체 **03** (1) ㉣ (2) ㉡ (3) ㉠ (4) ㉢ (5) ㉤ **04** (1) 진솔한 (2) 두엄 (3) 반어 **05** (1) × (2) ○ (3) ○ (4) × (5) ○ **06** ② **07** ② **08** (1) 슬하 (2) 생색 (3) 으스 (4) 더부살이 **09** (1) ⑤ (2) ③ (3) ② **10** 해설 참조 **11** (1) 염가 (2) 가시권 (3) 인권 (4) 오용 (5) 입법 (6) 경이 (7) 경외 (8) 남용 (9) 촉매 (10) 연민 (11) 각인 (12) 매료 (13) 개입

• 한자 성어: 주경야독

01

(1) '볕이나 습기 때문에 색이 변하거나 희미해지다.'를 뜻하는 말은 '바래다'입니다.

오답 풀이

• '바라다'는 '소망'을 뜻하는 단어로 "통일을 간절히 바라다."와 같은 문맥에서 쓰입니다.

• '바래이다'는 쓰지 않는 표현으로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바랬다 = 바라-+-았-+-다
바랬다 = 바래-+-았-+-다

(2) '길이'와 관련이 있는 단어는 '늘이다'입니다.

오답 풀이

'늘리다'는 '늘다'의 사동형으로 '사물의 넓이나 부피를 커지게 하다.' 또는 '수나 분량을 본디보다 많아지게 하다.'를 뜻하지만 '길이'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3) '어떤 일을 시작해 실행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벌이다'입니다.

오답 풀이

'벌리다'는 '가까운 두 대상을 서로 멀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4) 접두사 '피-'가 붙으면 '어떤 행위를 당함.'이라는 의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배를 하면 '지배층', 지배를 당하면 '피지배층'입니다.

(5) '탐색'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을 밝혀내기 위해 살피고 찾는 것.'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탐험'은 '위험을 무릅쓰고 어떤 곳을 찾아가서 살펴보고 조사함.'을 뜻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8 19. 11. 15. 오후 5:37

• '모색'은 '일이나 사건 따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실마리를 더듬어 찾음.'을 뜻합니다.

(6) '하릴없다'는 '달리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를 뜻합니다.

오답 풀이

• '하염없다'는 '시름 탓에 아무 생각이 없다.' 또는 '자신의 의지와 무관히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를 뜻합니다.

• '할 일 없다'는 말 그대로 '해야 할 일이 없다.'를 뜻합니다.

(7) '어떤 일의 기준이 되는 시간'을 나타낼 때는 조사 '-로써'를 사용합니다.

(8) '넘어지거나 거꾸로 뒤집어짐.'을 뜻하는 말은 '전도(顚倒)'입니다.

오답 풀이

• '전복(顚覆)'은 '① 차, 배 따위가 뒤집힘. ② 사회 체제가 무너지거나 정권 따위를 뒤집어엎음.'의 뜻이 있습니다.

• '경도(傾倒)'는 '온 마음을 기울여 사랑하거나 열중함.'을 뜻합니다.

02

(1) 사람들은 피곤할 때 단맛이 나는 음식을 많이 찾는다고 하였으므로 '경향'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2) 정부는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예산을 쓴다고 하였으므로 '할애'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3) 법원은 어려운 형편을 고려하여 벌금을 감면해 준다고 하였으므로 감안'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4) 전통문화를 창조적으로 이어받아 후손들에게 물려준다고 하였으므로 '계승'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5) 자연 선택은 전체 가운데에서 생존에 유리한 일부가 선택되는 현상이므로 '전체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낱개.'를 뜻하는 '개체'가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 '답습'은 '예로부터 해 오던 방식이나 수법을 좇아 그대로 행함.'을 뜻합니다. 과거의 유산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이 '답습'인 반면 '계승'은 과거의 유산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평가하고, 현재에 맞게 창조적으로 변용하고 발전시키는 행위입니다.

• '간과'는 '큰 관심 없이 대강 보아 넘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 '수렴'은 '하나로 모아지는 것(모으는 것).'을 뜻합니다. "여론을 수렴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이지요.

03

(1) '표제(表題)'는 기사의 큰 제목. 기사 내용을 가장 압축적으로 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2) '식견(識見)'은 '학식과 견문. 사물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3) '불모(不毛)'는 '땅이 거칠고 메말라 생명이 태어나거나 자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4) '인과(因果)'는 '원인과 결과.'를 의미합니다.

(5) '여우비'는 '볕이 나 있는 날 잠깐 오다가 그치는 비.'를 의미합니다. 여우비가 내리는 날을 '여우 시집가는 날',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 부릅니다.

04

(1) '거짓이 없고 솔직하다.'를 뜻하는 단어는 '진솔(眞率)하다'로, 연예인답지 않은 진솔한 태도가 팬들을 매료시키는 것입니다.

(2) '풀, 짚 또는 가축의 배설물 따위를 썩힌 거름.'을 뜻하는 단어는 '두엄'으로, '퇴비'의 다른 말입니다.

(3) '말이나 글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본래의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는 '반어(反語)'로,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05

(1)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타당한 이유나 근거를 들어 밝히는 것은 '논증(論證)'입니다. '논거(論據)'는 논증을 위해 제시하는 논리적 '근거'를 말해요.

(2) '으름장'은 말과 행동으로 으르고 협박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3) '문책(問責)'은 잘못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問: 물을 문) '꾸짖는'(責: 꾸짖을 책) 것입니다.

(4) 농토의 소유자, 즉 땅 주인은 '지주'라고 합니다. '마름'은 '지주를 대신해 농토를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름' 밑에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 사람은 '소작농'입니다.

(5) '역설'은 앞과 뒤가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찬란한 슬픔의 봄',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말이지요. 반면 '반어'는 겉과 속이 모순되는 표현입니다. 잘못한 사람을 비난하면서 '잘했네'라고 말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06

〈보기〉에 '피고발인'에 쓰인 '피(被: 당할 피)-'는 '그것을 당함.'의 뜻을 더해 주는 접두사입니다. '피압박 계급', '피고용인', '피수식어', '피보험자'에 쓰인 '피-'도 마찬가지이지요. 반면 ② '피난민'에 쓰인 '피(避: 피할 피)'는 '피하다'의 어근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39 19. 11. 15. 오후 7:12

07

②의 '거치다'는 '「2」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나거나 들르다.'의 뜻으로 쓰인 반면, ①, ③, ④, ⑤의 '거치다'는 '「3」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08

(1) 선생님은 자식을 1남 2녀를 두셨고 하였으므로 '무릎의 아래.'라는 뜻으로, '어버이나 조부모의 보살핌 아래.'라는 의미인 '슬하(膝下)'가 들어가야 합니다.

(2) 친구가 떡볶이 한 번 사 준 것 가지고 지나치게 자랑한다는 의미이므로 '다른 사람 앞에 당당히 나서거나 지나치게 자랑하다.'라는 뜻인 '생색(生色)내다'의 '생색'이 들어가야 합니다.

(3) 돈 좀 있다고 뽐낸다는 의미이므로 '어울리지 아니하게 우쭐거리며 뽐내다.'라는 뜻인 '으스대다'의 '으스'가 들어가야 합니다.

(4) 남의 집에서 얹혀살았다는 의미이므로 '남에게 얹혀사는 일.'을 뜻하는 '더부살이'가 들어가야 합니다.

09

(1) 빈칸에는 '모두가 그러하다고 생각하는 바.' 정도의 뜻을 지닌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며, 그러한 뜻을 지닌 단어는 '통념'입니다.

오답 풀이

① '관념'은 '어떤 일에 대한 추상적인 견해와 생각.'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② '신념'은 '굳게 믿는 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③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④ '상념'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2) 빈칸에는 '어떤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 정도의 뜻을 지닌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며, 그러한 뜻을 지닌 단어는 '함유'입니다.

오답 풀이

① '보유'는 '가지고 있거나 간직하고 있음.'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② '소유'는 '가지고 있음. 또는 그 물건.'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④ '점유'는 '물건, 영역, 지위 따위를 차지함.'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⑤ '전유'는 '독차지하여 가짐.'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3) 빈칸에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나 도리가 없는 상황.' 정도의 뜻을 지닌 말이 들어가야 적절하며, 그러한 뜻을 지닌 단어는 '속절없이'입니다.

오답 풀이

① '부질없이'는 '쓸모없이, 불필요하게.'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③ '영락없이'는 '조금도 틀리지 아니하고 꼭 들어맞게.'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④ '거침없이'는 일이나 행동 따위가 막힘 없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⑤ '간단없이'는 끊임없이, 계속하여.'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10

①추	진	력	
산			③합
	②대	거	리
	목		적

11

(1) '매우 싼 값.'을 뜻하는 단어는 '염가'입니다.
(2)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를 일컫는 단어는 '가시권'입니다.
(3)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를 의미하는 단어는 '인권'입니다.
(4) '잘못 사용함.'을 뜻하는 단어는 '오용'입니다.
(5) 의회는 법률을 제정하므로 '입법부'로 불립니다.
(6) 놀랍고 신기한 일을 볼 때 '경이롭다'라고 말합니다.
(7) '공경하면서 두려워함.'을 뜻하는 단어는 '경외'입니다.
(8) 일정한 기준이나 한도를 넘어서 함부로 쓰는 것을 '남용'이라고 합니다.
(9) '자신은 변화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물질의 화학 반응을 매개하여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늦추는 일. 또는 그런 물질.'을 뜻하는 단어는 '촉매'입니다.
(10)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기는 마음을 일컫는 단어는 '연민'입니다.
(11)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을 뜻하는 단어는 '각인'입니다.
(12)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홀리게 하는 것을 '매료'라고 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0 19. 11. 15. 오후 5:37

(13)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일에 끼어드는 것을 '개입'이라고 합니다.

• 남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주경야독'입니다. '주경야독(晝耕夜讀)'은 '낮에 농사를 짓고, 밤에 책을 읽는다.'라는 뜻으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열심히 공부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염	가	야	개	입
독	시	각	경	법
인	권	인	촉	매
연	경	이	남	료
민	외	오	용	주

30강 종합 평가 (2)

본문 188~192쪽

01 (1) 헤치고 (2) 체 (3) 설욕 (4) 퇴색 (5) 반가 (6) 내력 (7) 면담 (8) 시상 **02** (1) 수필 (2) 경청 (3) 암묵적 (4) 역사성 **03** (1) ㉤ (2) ㉠ (3) ㉣ (4) ㉢ (5) ㉡ **04** (1) 눈시울 (2) 부뚜막 (3) 시나리오 **05** (1) ○ (2) ○ (3) ○ (4) × (5) × **06** ② **07** ③ **08** (1) 사전적 의미 (2) 비극 (3) 논거 (4) 동음이의어 **09** (1) ④ (2) ③ (3) ⑤ **10** (1) ㉢ (2) ㉠ (3) ㉡ **11** (1) 낙화 (2) 구슬프다 (3) 참상 (4) 우듬지 (5) 어혈 (6) 에두르다 (7) 오금 (8) 협상 • 한자 성어: 아전인수

01

(1)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지나가다.'를 뜻하는 말은 '헤치다'입니다.

오답 풀이

• '해치다'는 '상대방을 해롭게 만들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 '파헤치다'는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 보이다.'를 뜻하는 말입니다.

(2) '어떤 태도나 모양을 꾸밈.'을 뜻할 때 쓰는 말은 '체' 또는 '척'입니다. 보통 접사 '-하다'와 결합해 '~ 체(척)하다'와 같이 쓰입니다.

오답 풀이

• '채'는 '어떤 상태로 그대로 있음.'을 뜻하는 말로, "안경을 쓴 채로 잠이 들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입니다.

• '째'는 체언과 결합해 '그대로, 전부'의 뜻을 더하며, "사과를 껍질째 먹다."와 같은 문장에서 쓰입니다.

(3) '부끄러웠던 일에 대해 앙갚음을 함.'을 뜻하는 단어는 '설욕(雪辱)'입니다.

오답 풀이

• '굴욕(屈辱)'은 '남에게 억눌리어 업신여김을 받음.'을 뜻합니다.

• '모욕(侮辱)'은 '깔보고 욕되게 함.'을 뜻합니다.

(4) 오랜 세월 동안 초록색이 흐려졌다는 문맥상 '빛이나 색이 바램.'을 뜻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퇴색(退色)'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 '변색(變色)'은 '빛깔이 변하여 달라짐. 또는 빛깔을 바꿈.'을 뜻합니다.

• '착색(着色)'은 '그림이나 물건에 물을 들이거나 색을 칠하여 빛깔이 나게 함.'을 뜻합니다.

(5) '지체 높은' '별당 마님'이라는 문맥으로 보아 '양반의 집안.'을 뜻하는 말이 와야 하므로 '반가(班家)'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 '상민(常民)'은 '양반이 아닌 보통의 백성.'을 뜻합니다.

• '잔반(殘班)'은 '몰락한 양반.'을 뜻합니다.

(6) 돈을 모으는 데는 그 나름의 이유나 과정이 있었다는 의미이므로 '어떤 일이 있게 된 과정이나 까닭.'을 뜻하는 '내력(來歷)'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 '경력(經歷)'은 '겪어 지내 온 여러 가지 일.'을 뜻합니다.

• '이력(履歷)'은 '지금까지 거쳐 온 학업, 직업, 경험 등의 경력.'을 뜻합니다.

(7) NGO 활동과 시민 참여 운동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를 직접 만나 대화를 하였으므로 '면담'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면담'과 '면접'은 둘 다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이루어지는 질의응답식 대화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가'를 목적으로 하는 '면접'과 달리 '면담'은 '정보나 도움'을 얻으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답 풀이

'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함.'이라는 뜻입니다.

(8) 시간의 흐름, 공간의 변화, 시선의 이동은 시상이 전개되는 방식이므로 '시에 드러난 느낌이나 생각.'을 뜻하는 '시상(詩想)'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1 19. 11. 15. 오후 5:37

오답 풀이

- '심상(心象)'은 '감각에 의하여 획득한 현상이 마음속에서 재생된 것.'을 뜻합니다.
- '정서(情緖)'는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뜻합니다.

02

(1)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수필'입니다. 수필은 일상의 경험을 소재로 삼아 쓰는 자유로운 형식의 글로, '붓 가는 대로 쓰는 글'이라고도 합니다.

(2)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경청'으로, '남의 말을 귀기울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3)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단어는 '암묵적'입니다. '자기의 의사를 밖으로 나타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암묵적'의 반대말은 '명시적'입니다.

(4)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언어의 형태나 뜻이 달라지는 현상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03

(1) '형태소'는 의미의 최소 단위. 즉, 뜻을 지닌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2) 'O.L.(오버랩)'은 한 화면에 다른 화면을 겹쳐서 장면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3) '울림소리'는 발음할 때 성대가 떨려 울리는 소리입니다.

(4) '피동문'은 남에게 어떤 행동을 당하는 상황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5) '방백'은 연극에서, 등장인물이 말을 하지만 무대 위의 다른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만 들을 수 있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를 말합니다.

04

(1) '속눈썹이 있는 눈의 주위.'를 뜻하는 단어는 '눈시울'로, '눈시울이 뜨거워지다.'라는 표현으로 뭉클하거나 슬픈 상황을 나타냅니다.

(2) '부엌 아궁이 위, 솥을 걸어 놓은 곳 주변의 평평한 자리.'를 뜻하는 단어는 '부뚜막'으로, 겉보기에 점잖고 얌전한 사람이 뜻밖의 얌체 같은 행동을 함.'을 이르는 말인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 형태로 쓰입니다.

(3) '영화, 드라마와 같은 영상물을 만들기 위해 쓰이는 대본.'을 뜻하는 단어는 '시나리오'입니다.

05

(1) 은유나 직유와 같은 비유는 원관념과 보조 관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조 관념은 원관념을 보다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쓰이지요. "그의 눈은 새벽별 같다."라는 문장에서 '그의 눈'은 원관념, '새벽별'은 보조 관념입니다.

(2) 시에서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시적 화자'입니다. 시적 화자는 꼭 시인과 동일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많은 남성 시인이 본인의 시 작품에서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로 진술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때 시적 화자는 '젊은 여성'이 됩니다.

(3) 화자와 청자가 주고받는 '발화'가 둘 이상 모인 것을 '담화'라고 합니다.

(4) 말소리의 억양, 어조, 강약, 높낮이, 속도 등 언어적 표현에 수반되는 음성적 요소를 가리키는 말은 '준언어적 표현'(또는 '반언어적 표현')입니다. '비언어적 표현'은 시선, 표정, 몸짓, 손짓 등 말할 때의 신체 동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 '공감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느낌과 생각을 헤아리면서 대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06

②의 '굵다'는 '물체의 지름이 보통을 넘어 길다.'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 경우 반대말은 '가늘다'입니다.

오답 풀이

① '굵다'는 '밤, 대추, 알 따위가 보통의 것보다 부피가 크다.'라는 뜻으로 쓰여, 이 경우 반대말은 '잘다'가 됩니다.

③ 목소리가 굵다는 것은 '목소리의 울림이 크다.'라는 뜻으로, 이 경우 반대말은 '소리의 울림이 보통에 미치지 못하고 약하다.'라는 뜻의 '가늘다'가 됩니다.

④ 이불이 두껍다는 것은 이불의 두께가 보통 정도보다 크다는 뜻으로, 이 경우 반대말은 '얇다'가 됩니다.

⑤ 빗줄기가 굵다는 것은 '빗방울의 부피가 크다.'라는 뜻으로, '물체의 지름이 보통의 경우에 미치지 못하고 짧다.'라는 뜻의 '가늘다'가 됩니다.

07

③의 '치-'는 '치다'에서 온 말로, '차나 수레 따위에 사람이 강한 힘으로 부딪히다.'를 뜻합니다. 반면, ①, ②, ④, ⑤의 '치-'는 어떤 독립된 단어에서 비롯한 말이 아니라, 다른 단어와 결합해 '위로 향하게' 또는 '위로 올려'의 뜻을 더하는 접사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2 19. 11. 15. 오후 5:37

08

(1) 시에는 기본적으로 시어가 지닌 사전적 의미를 바탕으로 다양한 함축적 의미가 사용됩니다. 사전적 의미는 사전에서 정의한 것과 같은 어휘의 의미인 '지시적 의미'를 말합니다.

(2) 『리어왕』은 불행한 결말을 지닌 비극으로, '비극(悲劇)'은 인생의 슬픔과 비참함을 제재로 하고, 주인공의 파멸, 패배, 죽음 따위의 불행한 결말을 갖는 극 형식을 말합니다.

(3)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논거'는 '토론이나 논설문에서 주장을 뒷받침해 주는 논리적 근거를 가리킴.'을 뜻합니다.

(4) '배[梨]'와 '배[舟]'는 동음이의어입니다. '동음이의어(同音異議語)'는 발음은 같으나 뜻이 다른 단어, 예를 들어 '눈[眼: 시각 기관]'과 '눈[雪: 겨울에 내리는 눈]'은 서로 동음이의어 관계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09

(1) 문맥상 빈칸에는 규칙이나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해 가해지는 규제 또는 압력을 뜻하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의 위반에 대하여 제한하거나 금지함.'을 뜻하는 '제재'가 빈칸에 들어갈 단어로 가장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① '강제'는 '권력이나 위력(威力)으로 남의 자유의사를 억눌러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킴.'을 의미합니다.
② '압제'는 '권력이나 폭력으로 남을 꼼짝 못 하게 강제로 누름.'을 의미합니다.
③ '제어'는 '상대편을 억눌러서 제 마음대로 다룸.'을 의미합니다.
⑤ '통제'는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에 따라 행위를 제한하거나 제약함.'을 의미합니다.

(2)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배포'입니다. '배포'는 '머리를 써서 일을 조리 있게 계획함. 또는 그런 속마음.'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① '강단'은 '굳세고 꿋꿋하게 견디어 내는 힘.'을 의미합니다.
② '기백'은 '씩씩하고 굳센 기상과 진취적인 정신.'을 의미합니다.
④ '성격'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이나 품성.'을 의미합니다.
⑤ '용기'는 '굳세고 씩씩한 기운.'을 의미합니다.

(3) 문맥상 빈칸에 들어갈 적절한 말은 '지조'입니다. '지조'는 '원칙이나 신념을 지키려는 의지.'를 뜻합니다.

오답 풀이

① '이념'은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 이데올로기.'를 의미합니다.
② '의욕'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마음이나 욕망.'을 의미합니다.
③ '의지'는 '어떠한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④ '지성'은 '감각이나 감정에 의존하지 않고, 추론, 종합, 분석 등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10

(1) 햇빛이 비치자 숲속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났다. ➡ '햇빛이 비치다. + 숲속의 동물들이 잠에서 깨어났다.'와 같이 2개의 문장으로 분석되므로 겹문장이고, 2개의 문장이 나란히 이어져 있으므로 이어진문장입니다.

(2) 그 문제에 대한 내 생각은 네 생각과 조금 다르다. ➡ 주어('생각은')와 서술어('다르다')가 한 번만 만나는 홑문장입니다.

(3) 그는 남들이 알지 못하게 봉사 활동을 해 왔다. ➡ '그는 봉사 활동을 해 왔다.(①) + 남들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②)'와 같이 2개의 문장으로 분석되므로 겹문장이고, 문장 ②가 문장 ①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안은문장입니다.

11

(1) '꽃이 떨어지는 것. 또는 그 꽃.'을 일컫는 단어는 '낙화(落花)'입니다.

(2) 마음이 쓸쓸해질 만큼 슬픈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는 '구슬프다'입니다.

(3) '끔찍하고 비참한 모습이나 상황.'을 뜻하는 단어는 '참상(慘狀)'입니다.

(4) 나무 꼭대기에 있는 줄기를 가리키는 단어는 '우듬지'입니다.

(5)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힌 것.'을 일컫는 단어는 '어혈(瘀血)'입니다.

(6) '바로 말하지 않고 짐작하여 알아듣도록 둘러대며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는 '에두르다'입니다.

(7) '다리를 굽힐 때 안으로 구부러지는 무릎의 안쪽 부분.'을 뜻하는 단어는 '오금'입니다. '오금이 저리다.'라는 관용 표현은 '저지른 잘못이 들통이 나거나 그 때문에 나쁜 결과가 있지 않을까 마음을 졸이다.'를 의미합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3 19. 11. 15. 오후 5:37

(8) 이익과 주장이 달라 갈등하는 양쪽이 서로 타협하고 조정하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의사소통 방식은 '협상(協商)'입니다.

• 남은 글자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한자 성어는 '아전인수'입니다. '아전인수(我田引水)'는 자신에게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비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전	금	우	참	상
오	어	듬	낙	에
혈	아	지	화	두
구	슬	프	다	르
수	협	상	인	다

관용 표현 익히기 본문 193쪽

01 ㉣ **02** 천석고황(泉石膏肓)

01

부모님 살아 계실 때 효도하라는 문맥으로 보아 효도를 다하지 못한 채 어버이를 여읜 자식의 슬픔을 이르는 말인 '풍수지탄(風樹之嘆)'이 들어가야 적절합니다.

오답 풀이

㉠ '만시지탄(晩時之歎)'은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함을 의미합니다.

㉡ '망양지탄(亡羊之歎)'은 학문과 진리 찾기의 어려움을 뜻하는 말입니다.

㉢ '맥수지탄(麥秀之嘆)'은 나라의 멸망을 안타까워함을 의미합니다.

02

'천석고황(泉石膏肓)'은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몹시 사랑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오답 풀이

• '반포지효(反哺之孝)'는 까마귀 새끼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라는 뜻으로, 자식이 자란 후에 어버이의 은혜를 갚는 효성을 이르는 말입니다.

• '사친이효(事親以孝)'는 어버이를 모실 때에는 효로써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혼정신성(昏定晨省)'은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 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부모의 밤새 안부를 묻는다는 뜻으로, 부모를 잘 섬기고 효성을 다함을 이르는 말입니다.

어휘-중등해설(01-48)육.indd 44 19. 11. 15. 오후 5:37

memo

memo

memo

memo